

● 제290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2019. 11.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203 1204

I. 예산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 : 2019년 11월 1일

다. 회부일 : 2019년 11월 5일

II. 예산안 규모 및 특징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0년 세입예산은 총 1,942억 5천 5백만원으로, 2019년 예산액 1,885억 3천 6백만원 보다 57억 1천 9백만원을 증액(3.0%) 편성.

〈표〉 2020년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예산	2020예산(안)	증·감	
			증감액	비율(%)
계	188,536	194,255	5,719	3.0
일반회계	188,536	194,255	5,719	3.0

〈표〉 2020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액				세입내용
	2019 최종예산	2020예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188,536	194,255	5,719	3.0	
세외수입	58,516	61,626	3,110	5.3	
공유재산임대료	1,614	330	△1,284	△79.6	·서북병원 매점 등 임대수입 ·어린이병원/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39	39	△1	△1.6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수입 ·서북병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수입
증지수입	480	461	△20	△4.1	·사료성분등록(재발급) 증지수입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수수료
재활용품판매수입	1	1	0	0	·은평병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의료사업수입	38,203	39,417	1,214	3.2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진료비수입
기타사업수입	115	114	△1	△1.2	·제대혈공급수입
징수교부금수입	76	85	9	11.9	·수질개선부담금
기타이자수입	267	345	79	29.6	·부서별 이자수입
과징금	7	5	△2	△27.1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변상금	203	102	△101	△49.7	·어린이병원/서북병원 변상금
위약금	3	4	0	13.4	·보건환경연구원 지연배상금 등 위약금
과태료	11	13	2	21.2	·건강증진과 과태료

예산과목	예산액				세입내용
	2019 최종예산	2020예산 (안)	증 감	증감율(%)	
불용품매각대	27	29	3	10.0	·보건환경연구원 불용품매각대금
시도비반환금수입	14,423	17,929	3,506	24.3	
그외수입	4,234	4,341	107	2.5	
지난연도수입	1,923	2,688	764	39.7	
보조금	126,123	127,395	1,272	1.0	
국고보조금	19,466	21,093	1,627	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916	12,370	3,454	38.7	
기금	97,741	93,932	△3,809	△3.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6	957	171	21.7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86	957	171	21.7	

2. 세출예산

-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4,816억 9천 8백만원으로 2019년 최종예산 4,852억 1천 7백만원보다 35억 1천 8백만원을 감액(△0.7%) 편성.

〈표〉 2020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안	증·감	
			증감액	비율(%)
계	485,217	481,697	△3,519	△0.7
일반회계	485,217	481,697	△3,519	△0.7
행정운영경비	8,063	8,017	△46	△0.6

구 분	2019 예산	2020 예산안	증·감	
			증감액	비율(%)
재무활동 (반환금및기타)	599	435	△164	△27.7
사업비	476,555	473,246	△3,309	△0.7

3. 기금운용계획안

- 식품진흥기금의 2020년도 운용규모는 64억 5천 2백만원으로 2019년도 86억 7천 3백만원에 비해 22억 2천 1백만원(△25.6%)이 감액.

〈표〉 2020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비율)

부 서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안	증·감	
			증감액	비율(%)
식 품 정 책 과	8,673	6,452	△2,221	△25.6

- 융자성 사업비 5억원 증액, 비융자성 사업비 8천 9백만원, 예치금이 26억 3천 2백만원 감액되어 전년 대비 총 22억 2천 1백만원 (△25.6%) 감액.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세입 예산안 검토

가. 2020년 세입예산안 총괄 내역

-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42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7억 1천 9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증가 비율은 3.0%로 나타났음. 시민건강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서울시 일반회계 세입 총 26조 9천 2억원 대비 0.7%에 해당하는 금액임.

〈표〉 2020년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최종예산(①)	2020년 예산안(②)	2019년 대비 증감액 (② - ①)	증감율(%)
188,536	194,255	5,719	3.0

나. 최근 5년간 세입 현황

- 시민건강국의 최근 5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먼저 2016년 대비 세입예산은 35,3% 증가한 1,942억 5천 5백만원으로 나타났음. 세입이 증가하는 특별한 원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보조금, 경상적 세외수입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2020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에 의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은 1,273억 9천 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세외수입’이 659억 3백만원으로 전체의 33.9%로 나타남.
- 2020회계연도 세입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19년에 비해 ‘세외수입’은 4% 감소하였으며, 세외수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3.9%로 구성되었음. 국고보조금은 전체의 65.6%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2억 7천 3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1.0% 증가한 것임.

〈표〉 최근 5년간 시민건강국 세입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19년대비	증감율(%)
						증감액	
계	143,475	157,760	193,907	188,536	194,255	5,719	3.0
	100%	100%	100%	100%	100%		
세외수입(전체대비 구성비율%)	39,912	41,375	67,039	61,626	65,903	4,277	6.9
	27.8%	26.2%	34.6%	32.7%	33.9%		
경상적세외수입	35,077	3,618	41,779	40,795	40,791	△4	0.0
재산임대수입	715	952	1,513	1,614	330	△1,284	△79.6
사용료수입	215	186	39	39	39	△1	△1.6
수수료수입	475	475	466	482	462	△20	△4.1
사업수입	33,646	34,642	39,191	38,318	39,531	1,213	3.2
장수교부금수 입	26	63	90	76	85	9	11.9
이지수입	-	-	480	267	345	79	29.6
임시적세외수입	4,835	5,057	25,260	20,831	25,111	4,280	20.5
과장금및과태 료등	48	32	238	224	124	△100	△44.6
기타수입	4,787	4,837	22,953	18,684	22,300	3,616	19.4
지난연도수입	-	188	2,069	1,923	2,688	764	39.7
보조금(전체대비 구성비율%)	103,052	115,696	125,820	126,123	127,395	1,272	1.0
	71.8%	73.3%	64.9%	66.9%	65.6%		
국고보조금등	103,052	115,696	125,820	126,123	127,395	1,272	1.0
국고보조금등	103,052	115,696	125,820	126,123	127,395	1,272	1.0
보전수입등내부거래(전체대비 구성비율%)	511	689	798	786	957	171	21.7
	0.4%	0.4%	0.4%	0.4%	0.5%		
보전수입등	511	689	798	786	957	171	21.7
전년도이월금	511	689	798	786	957	171	21.7
내부거래	11	15	11	-	-	-	-
전입금	11	15	11	-	-	-	-

다. 시민건강국 세입 세부사항

- 2020년 세입예산은 총 1,942억 5천 5백만원으로, 2019년 예산액 1,885억 3천 6백만원보다 57억 1천 9백만원을 증액(3.0%) 편성한 바 이에 따라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매칭 및 직영병원 의료사업수입에 의한 것으로 다음과 같음.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3,566백만원 증액
 - 직영병원 의료사업수입 1,214백만원 증액
 -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984백만원 증액
 - 응급의료기관 지원 494백만원 증액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487백만원 증액

- 주요 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국비 보조금의 감소, 공유재산임대료의 감소가 주요한 사유임.
 - 국가 암검진 2,123백만원 감액
 - 암환자 의료비 지원 1,326백만원 감액
 - (서북병원)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1,400백만원 감액
 - (서북병원)공유재산 임대료 1,292백만원 감액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775백만원 감액
 -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369백만원 감액

- 시민건강국 과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비보조금이 많은 건강증진과 623억 8천 2백만원, 질병관리과 579억 2천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편성예산 대비 보건의료정책과는 세입예산이 작은 편으로 252억 5천 1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시민건강국 과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9 예산(A)	2020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시민건강국	188,536	194,255	5,719	3.0
보건의료정책과	22,600	25,251	2,651	11.7
건강증진과	57,756	62,382	4,626	8.0
식품정책과	4,217	4,975	758	18.0
질병관리과	58,816	57,920	△896	△1.5
동물보호과	1,057	904	△153	△14.5
보건환경연구원	1,947	2,277	330	16.9
어린이병원	14,102	14,553	451	3.2
은평병원	9,201	8,652	△549	△6.0
서북병원	18,839	17,341	△1,498	△8.0

- 시민건강국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79.6% 감소하였음. 이는 서북병원의 장례식장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였기 때문임. 이 외에 변상금 등은 금액이 크지 않으나 감소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전년대비 24.3% 증가한 179억 2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자치구에 교부한 예산이 반납되는 것으로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의 사용이 저조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표〉 시민건강국 2020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예산액				세입내용
	2019 최종예산	2020예산 (안)	증 감	증감율(%)	
계	188,536	194,255	5,719	3.0	
세외수입	58,516	61,626	3,110	5.3	
공유재산임대료	1,614	330	△1,284	△79.6	·서북병원 매점 등 임대수입 ·어린이병원/서북병원 부설주차장 수입
기타사용료수입	39	39	△1	△1.6	·보건환경연구원 주차장수입 ·서북병원 거주자우선 주차장 운영수입
증지수입	480	461	△20	△4.1	·의료성분등록(재발급) 증지수입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수수료
재활용품판매수입	1	1	0	0	·은평병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의료사업수입	38,203	39,417	1,214	3.2	·어린이/은평/서북병원 진료비수입
기타사업수입	115	114	△1	△1.2	·재대혈공급수입
장수교부금수입	76	85	9	11.9	·수질개선부담금
기타이자수입	267	345	79	29.6	·부서별 이자수입
과징금	7	5	△2	△27.1	·의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변상금	203	102	△101	△49.7	·어린이병원/서북병원 변상금
위약금	3	4	0	13.4	·보건환경연구원 지연배상금 등 위약금
과태료	11	13	2	21.2	·건강증진과 과태료
불용품매각대	27	29	3	10.0	·보건환경연구원 불용품매각대금

예산과목	예산액				세입내용
	2019 최종예산	2020예산 (안)	증 감	증감율(%)	
시도비반환금수입	14,423	17,929	3,506	24.3	
그외수입	4,234	4,341	107	2.5	
지난연도수입	1,923	2,688	764	39.7	
보조금	126,123	127,395	1,272	1.0	
국고보조금	19,466	21,093	1,627	8.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16	12,370	3,454	38.7	
기금	97,741	93,932	△3,809	△3.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786	957	171	21.7	
국고보조금사용잔액	786	957	171	21.7	

가. 총괄

- 2020 회계연도 시민건강국 세출예산안은 전체 4,816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5억2천만원 감액된 안임. 이중 국비가 1,27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국비 증액은 12억7천만원이며 시비는 47억9천만원 감액된 편성안임.

〈표〉 2020년 시민건강국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2019	2020	증감
시민건강국 전체	(x126,123,201)	(x127,394,987)	(x1,271,786)
	485,216,899	481,698,477	△3,518,422

- 정책사업 위주로 살펴보면 공공 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이 국비가 2억 4천 7백만원이 감소되었고 합계 96억 1천 3백만원이 감소한 1,512억 1천 3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한 감액사유로는 서울의료원 운영보조금 69억 7천만원을 들 수 있음.
- 다음 정책사업인 시민건강수준 향상의 경우 국비 47억 5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 114억 6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주요 증액사유로는 국비 차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 및 신규고용을 위한 예산 47억원, 서울형 난임부부지원사업의 11억 5천만원 등 임.

-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의 경우 국비 5억 3천 3백만원 증액되었고 총액은 19억 3천 4백만원 증액된 122억 5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전년대비 국비의 증가폭이 크지 않으나 시비의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신규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임.
- 생활보건 관리 향상의 경우 전년대비 96억 4천 5백만원 감액되었는데 국비 매칭 사업의 감액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주요한 감액사유로는 국가 암 검진 45억 9천 9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8억 7천 2백만원 등임.
-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의 경우 국비가 1억 7천만원을 감액되었으나 전체 2억 2천 6백만원 증액된 67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 사업소별 정책사업을 살펴보면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 운영의 경우 국비증액분 3억 2천 5백만원을 포함하여 62억 2천 4백만원이 증액된 194억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사업인 대기질 통합 분석 운영을 위한 82억 5백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임.
- 이 외 직영병원의 경우 어린이병원 10억 6천만원 증액, 은평병원 2억 7천만원 증액, 서북병원 감액 52억 4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는데 서북병원의 경우 환경개선비용의 감소로 나타난 일시적 감액임.

〈표〉 2020년 시민건강국 정책(단위)사업별 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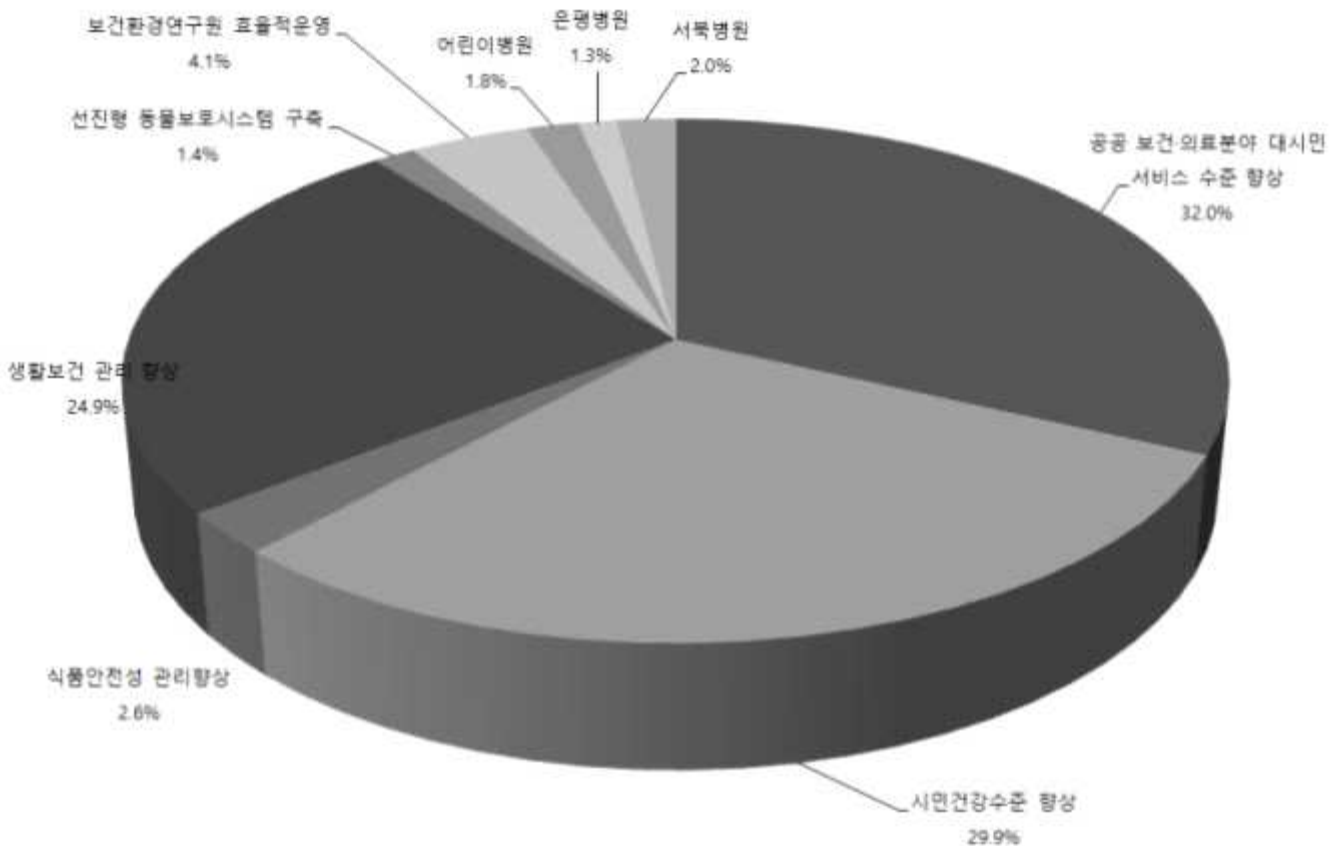
(단위 : 천원)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단위사업			
공공 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X14,504,992) 160,827,296	(X14,257,569) 151,213,926	(X△247,423) △9,613,370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X2,500,000) 74,091,131	(X1,725,000) 64,974,508	(X△775,000) △9,116,623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X7,720,069) 29,556,862	(X7,838,902) 28,262,488	(X118,833) △1,294,374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X4,284,923) 57,179,303	(X4,693,667) 57,976,930	(X408,744) 797,627
시민건강수준 향상	(X50,045,821) 130,127,677	(X54,803,829) 141,595,891	(X4,758,008) 11,468,214
건강생활 기반 조성	(X5,682,754) 11,514,264	(X5,674,970) 10,783,880	(X△7,784) △730,384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X6,664,503) 10,142,223	(X6,765,829) 10,293,820	(X101,326) 151,597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X30,617,392) 70,766,449	(X35,184,616) 77,351,848	(X4,567,224) 6,585,399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X7,081,172) 37,704,741	(X7,178,414) 43,166,343	(X97,242) 5,461,602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X3,993,130) 10,316,693	(X4,526,058) 12,251,616	(X533,130) 1,934,923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X3,676,683) 10,209,793	(X4,209,813) 12,144,716	(X533,130) 1,934,923
원산지관리	106,900	106,900	-
생활보건 관리 향상	(X53,507,301) 127,715,323	(X50,893,206) 118,069,453	(X△2,614,095) △9,645,870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단위사업				
	공중위생관리개선	(X417,000) 2,103,190	(X218,000) 2,296,191	(X△199,000) 193,001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	(X7,852,901) 18,062,119	(X4,403,946) 10,467,383	(X△3,448,955) △7,594,736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X3,030,027) 13,277,968	(X3,457,575) 10,306,438	(X427,548) △2,971,530
	생활보건 예방관리	(X42,207,373) 94,272,046	(X42,813,685) 94,999,441	(X606,312) 727,395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X819,973) 6,474,963	(X649,013) 6,701,056	(X△170,960) 226,093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X445,434) 5,868,403	(X274,474) 6,094,496	(X△170,960) 226,093
	수의공중보건 강화	(X374,539) 606,560	(X374,539) 606,560	-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X1,301,250) 13,205,528	(X1,626,738) 19,429,948	(X325,488) 6,224,420
	식·의약품 검사 강화	(X105,540) 2,397,713	(X109,350) 2,482,772	(X3,810) 85,059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X398,675) 1,306,495	(X322,575) 1,113,896	(X△76,100) △192,599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X698,535) 1,842,686	(X7,63,813) 2,009,456	(X65,278) 166,770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4,526,653	(X360,000) 10,386,517	(X360,000) 5,859,864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X98,500) 3,131,981	(X71,000) 3,437,307	(X△27,500) 305,326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어린이병원)	(X18,376) 7,920,394	(X30,905) 8,353,756	(X12,529) 1,063,362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X18,376) 7,920,394	(X30,905) 8,353,756	(X12,529) 1,063,362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단위사업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은평병원)	(X158,132) 5,935,342	(X172,412) 6,211,123	(X14,280) 275,781
은평병원 운영	(X158,132) 5,935,342	(X172,412) 6,211,123	(X14,280) 275,781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서북병원)	(X1,619,773) 14,661,979	(X279,061) 9,419,367	(XΔ1,340,712) Δ5,242,612
서북병원 운영	(X1,619,773) 14,661,979	(X279,061) 9,419,367	(XΔ1,340,712) Δ5,242,612

※ 행정운영경비(기본경비, 인력운영비)는 불포함



〈그림〉 2020년 시민건강국 단위사업별 예산(안)분포

나. 부서별 예산안

1)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는 1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9년 대비 96억 1천 3백만원 감소한 1,512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6.0% 감소한 것임.
-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개선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91억 1천 6백만원 감소하여 총 649억 7천 4백만원 편성되었으며 12.3%가 감소한 것임. 다음으로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의 경우 전년대비 4.4% 감소하여 총 282억 6천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전년대비 12억 9천 4백만원 감소) 마지막으로 정신보건 시설운영의 경우 전년대비 1.4% 증가하여 579억 7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 예산 571억 7천 9백만원 대비 7억 9천 7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 정책사업인공공 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의 경우 국비의 감소폭이 2억 4천 7백만원으로 크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살펴보아도 국비의 감소는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관리 7억 7천 5백만원 감소한 데 반해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1억 1천 8백만원, 정신보건 시설운영 4억 8백만원 증액 등으로 나타나 시비의 감소폭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보건의료정책과 단위사업별 예산

(단위: 천원, %)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증감비
단위사업				
공공 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X14,504,992) 160,827,296	(X14,257,569) 151,213,926	(X△247,423) △9,613,370	△6.0%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X2,500,000) 74,091,131	(X1,725,000) 64,974,508	(X△775,000) △9,116,623	△12.3%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X7,720,690) 29,556,862	(X7,838,902) 28,262,488	(X118,833) △1,294,374	△4.4%
정신보건 시설운영	(X4,284,923) 57,179,303	(X4,693,667) 57,976,930	(X408,744) 797,627	1.4%

- 시비 감소폭이 매우 큰 것은 주요사업별 증감액을 살펴보면 자세히 볼 수 있음.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의 경우 2019년 203억 4천 1백만원에서 69억 7천만원 줄어든 133억 7천만원으로 34.3% 감액되었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의 경우 전년 대비 11억 8천 9백만원 감액되어 14.4%가 감액되었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위탁운영의 경우 전년대비 21.5%가 감액된 26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단위사업인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에서 많은 양의 금액이 감액된 것은 시립병원이 보조금 없이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나 반대로 생각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인색해 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시민의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심의에의 고려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됨.

- 다음으로 단위사업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 중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의 경우 전년대비 11억 8천만원이 감액된 36억 6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의 경우 전년 대비 27.2% 감소한 2억 6천 7백만원, 안전망병원 운영 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1억 3천 3백만원이 감소하여 29.5%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를 단순히 세부사업별 증감율로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 주요 증액사업의 경우는 시립정신병원(고양, 백암, 축령)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전년 대비 658.0% 증가한 15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민건강포인트 사업이 47.0% 인상된 9억 5천 2백만원,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251.8% 증가한 3억 5천 1백만원,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이 1억 4백만원 증가하여 77.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이 39.2% 증가하여 6억 5천 8백만원 편성되었음. 또한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예산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이 7천만원 증액되어 46.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의 경우 13억 9천만원이 증가한 112억 8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신규사업으로는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사업이 1억 9천 2백만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이 9천만원, 응급입원 비용 지원이 1억 2천 7백만원,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이 1억 9천 2백만원 편성되었음. 신규사업의 경우는 모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표〉 보건의료정책과 주요 증감 사업(세부사업명 기준, 국비 구분 생략)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주요 감액사업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20,341,929	13,370,996	△6,970,933	△34.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8,282,352	7,092,755	△1,189,597	△14.4%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3,359,053	2,638,466	△720,587	△21.5%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4,846,000	3,666,000	△1,180,000	△24.3%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368,000	267,800	△100,200	△27.2%
	안전망병원 운영	452,000	318,500	△133,500	△29.5%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1,727,000	1,057,812	△669,188	△38.7%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200,744	1,521,715	1,320,971	658.0%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시민건강포인트사업	648,011	952,500	304,489	47.0%
	보건지소 확충 지원	1,790,000	3,498,000	1,708,000	95.4%
	서울시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000	351,840	251,840	251.8%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134,000	238,000	104,000	77.6%
	서울형 정신응급의료체계 운영	472,800	658,000	185,200	39.2%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마음 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150,000	220,000	70,000	46.7%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9,891,114	11,281,930	1,390,816	14.1%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사업	-	192,000	192,000	신규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90,000	90,000	신규
	응급입원 비용 지원	-	127,500	127,500	신규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	192,000	192,000	신규

가) 주요감액사업

(1) 공공의료기관 관리 및 운영 개선

(가) 서울의료원 운영보조(예산사업설명서 36P)

- 3개소 공공의료기관의 감액폭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자체재원)이 전액 삭감되었음. 이는 시립병원에 대한 설비투자가 인색해지는 경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음.
 - ※ 2019년 자체재원의 자본보조 사업의 경우 1층 난방 및 환자맞이 공간 개선(6억 4천만원), 의료정보시스템 기능개선(5억 5천 6백만원), 안전보안 강화 CCTV 설치 사업(4억 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음.
- 서울의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경우 2억 8백만원(12%)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업의 경우 자체재원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병원의 기획조직에 해당하는 시민공감서비스 디자인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2019년 3억 6천 5백만원에서 1억 7천 1백만원으로 증가한 5억 3천 1백만원임. 시민공감서비스 디자인센터의 예산 증액에 대한 서울의료원의 적극적인 해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
 - ※ 북한이탈주민 건강증진사업(1천 5백만원), 방문객 관리시스템 운영(4천 6백만원), 서울시 통합브랜드사업 사인물 교체(1억원, 종료), 스트레스 돌봄 프로그램 사업(1억원)은 감액(서울의료원 자체예산으로 사업추진)
 - ※ 시민공감서비스 디자인센터의 경우 보라매 병원에는 존재하지 않음. 서울의료원의 특화된 사업이긴 하나 기획이라는 내용적 측면에서 자체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 서울의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전년대비 36억 1천 2백만원 감액된 85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주요한 감액사유는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운영 감액 13억 6천 9백만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운영 7억 1천만원,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감액 11억 8천만원,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 3억 3천 6백만원 등임.
- 의학연구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서울의료원의 연구실적¹⁾이 민간위탁 병원인 보라매병원의 연구실적 보다 떨어진다는 점에서 타당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강남분원의 운영에 1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제출되었는데 강남분원을 계속하여 운영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의 감액은 취약계층환자가 많을수록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이 높아지는 현재의 공공의료 손실보전금 산출방식을 통해 미루어 보았을 때 취약계층 진료실적의 감소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함. 또한 노동시간 단축 시범사업의 경우 서울의료원이 그간 보여준 노무관리 실태를 보았을 때 감액이 합리적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임.
- ※ 예산이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임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병원의 설립목적, 병원의 운영상황,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임성, 민간에 모형을 제시하는 선도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예산편성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것임.

1) 질적 측면이 아닌 학술지 게재 실적인 양적 지표만을 의미함

〈표〉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예산

(단위: 천원, %)

내용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x2,250,000) 20,341,929	(x1,725,000) 13,370,996	(x△775,000) △6,970,933	△34.3%
민간경상사업보조	1,627,065	1,418,219	△208,846	△1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12,114,864	8,502,777	△3,612,087	△29%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600,000	0	△1,600,000	△100%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x2,500,000) 5,000,000	(x1,725,000) 3,450,000	(x△775,000) △1,550,000	△31%

(나)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예산사업설명서 44P)

- 서울의료원에 관한 예산이 크게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 병원의 경우 큰 예산 감액이 없었음. 그러나 동부병원과 같은 경우 전년대비 시설과 장비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감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동부병원은 서울의료원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병원으로 예산은 민간위탁금과 민간위탁사업비로 구분됨 민간위탁금은 공공의료 손실보전을 위한 예산과 이외의 목적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며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의료장비의 구입,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 등이 편성됨.
- 동부병원의 경우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은 전년대비 5억 5천 3백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약 10.3% 증가하였음. 그러나 의료장비 구입금액은 11억 1천 2백만원에서 6억 4천 2백만원으로 감소하여 42.2% 감소하였음. 또한 서울의료원의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금액은 전액 감액되었음(6억 2천만원).

〈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예산

(단위: 천원, %)

내용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8,282,352	7,092,755	△1,189,597	△14.4%
민간위탁금	5,885,912	6,027,185	141,273	2.4%
민간위탁사업비	2,396,440	1,065,570	△1,330,870	△55.5%

(다)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예산사업설명서 56P)

-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7억 2천만원 감액된 26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사유로는 민간위탁사업비가 6억 7백만원 감액되었고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1억 7천만원 감액되었음.

※ 민간위탁사업비의 경우 장애인치과 이동진료차량 4억 1천 3백만원의 감소가 큰 원인으로 나타남.

- 그런데, 시립병원의 민간위탁금 중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의 경우 공공의료손실에 대한 보전의 성격이 강한데,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환자 모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소위 의료취약계층의 진료가 100.0%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의 감소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음.

〈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예산

(단위: 천원, %)

내용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위탁운영	3,359,053	2,638,466	△720,587	△21.5%
민간위탁금	(x-) 2,476,872	(x-) 2,363,313	(x-) △113,559	(x-) △4
민간위탁 사업비	(x-) 882,181	(x-) 275,153	(x-) △607,028	(x-) △68

- 장애인치과병원의 손익계산서를 참고해 보면 의료이익에서의 손해분을 보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손익계산서를 통해 나타나듯이 감면액의 증가, 손익계산서상 손실의 증가로 병원의 경영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할 것임.
-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타 병원과 달리 수익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의료외 수익의 경우 보조금에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조금의 규모가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비용(인건비, 재료비 그 외)이 55억 6천만원에 이르나 의료수익의 경우 30억 1천 2백만원으로 의료로 인한 손실이 25억 4천 7백만원에 이르나 보조금은 22억 2천 9백만원임.
- 손익계산서의 작성시점(연말기준으로 작성)을 고려해 본다면 2020년 예산에는 2018년의 손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인데 공공의료손실보전금이 포함된 민간위탁금의 경우 23억 6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장애인 치과병원의 민간위탁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살펴보면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의 감가 존재함(2019년 16억 8천 2백만원 -> 2020년 15억 1천 3백만원).

〈표〉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금 구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공공의료 손실보전 1,682,186,000원 = 1,682,186천원	○ 공공의료 손실보전 1,513,000,000원 = 1,513,000천원
	○ 이동치과진료 426,814,000원 = 426,814천원	○ 이동치과진료 434,066,000원 = 434,066천원
	○ 치과치료비 지원 259,600,000원 = 259,600천원	○ 치과치료비 지원 296,760,000원 = 296,760천원
	○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41,282,000원 = 41,282천원	○ 공공구강보건의료사업 41,282,000원 = 41,282천원
	○ 301네트워크	○ 301네트워크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40,734,000원 = 40,734천원	42,216,000원 = 42,216천원
	○ 시립병원 통합브랜드 개발에 따른 병원 사인물 교체 26,256,000원 = 26,256천원	○ EDR 시스템 유지보수 30,182,000원 = 30,182천원
		○ 광파일 및 인증모듈 유지보수 5,807,000원 = 5,807천원
	증감사유	
	- 공공의료손실보전액 삭감(168백만원) - 인건비 및 재료비 물가상승률 등 반영	

○ 손익계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래수익 중 감면액이 눈에 띈다. 2017년 감면액에 비하여 2018년 감면액이 2천만원 증가하였음. 그리고 의료수익에 있어서도 2017년 대비 2018년이 높은 의료수익을 보이는데, 이는 2018년의 진료실적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함. 진료실적이 높아질수록 의료이익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는데(이는 정책인건비 인상반영 등을 포함함) 장애인 치과병원의 경영상태가 장기적으로는 어려워 질 것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예산 편성단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발전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장애인 치과병원의 예산편성은 전례답습적인 반복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병원 손익계산서

(단위: 천원, %)

과 목	2018년(제14기)	2017년(제13기)
의료수익	3,012,936	2,742,973
외래수익	4,720,414	4,429,361
(외래수익 조정: 감면액)	△1,709,696	△1,687,360
기타의료수익	2,218	972
의료비용	5,560,570	5,124,206
인건비	3,377,465	3,076,200
재료비	677,747	617,537
관리운영비	1,505,358	1,430,469
의료이익	△2,547,634	△2,381,233
의료외수익	2,259,064	2,208,699
이자수익	10,739	3,748
대손충당금환입	-	-
보조금수익	2,229,796	2,181,569
자산수증이익	-	-
잡이익	18,529	23,382
의료외비용	9,561	5,652
기부금	-	-
유형자산처분손실	-	148
재고자산감모손실	-	-
시운영보조금반환	9,561	5,504
잡손실	-	-
당기순이익	△298,131	△178,186

-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이 세금이라는 재원에 기대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할 것이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설립한 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통해 병원의 운영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재원을 깎으며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음.
- 병원의 수익이라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통해 얻어지는 의료수익이 대부분 인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하는 적정진료 보다는 과잉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음. 현재 비급여수가를 서울시가 통제하고 있으나 보조금의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는 결국 비급여수가의 증가를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임. 비급여

수가가 증가되는 경우 모든 비용은 장애인치과의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임. 공공의료의 민간의료화, 시장의료화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임.

- 병원의 시설환경이나 경영상의 문제는 의료진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바,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로 시립병원의 서비스 질의 높이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라) 소결

- 세부사업별로 시립병원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진료, 노숙·행려자 등 저소득시민과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수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 301네트워크, 무료간병사업, 의료질 향상을 위한 공공의료확충사업 수행, 중증 및 저소득 장애인 구강진료, 찾아가는 구강의료서비스 제공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진료기능을 가지고 있음.

※ 이는 구세대의 공공의료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의료서비스가 점차 고도화 되며, 특정한 병원은 시설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거나 높은 수준의 의료를 상시 제공하거나, 신규장비를 통해 환자에게 만족감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의료서비스가 발전하고 있음. 이를 의료서비스 시장화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전국민의료보험제도와 의료급여수급권 그리고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와 같은 건강권 강화정책에서 민간의료기관 대비 낮은 수준의 비급여수가만을 내세우는 경우 민간의료기관의 이용자는 증가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이용자는 감소하여 공공의료의 도태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할 것임.

※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수익 감소로 인한 재정의 타격이 우려됨.

-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도태되는 경우 의료수익의 감소로 인해 과도한 공적재원(세금)을 투입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이 가진 장점보다는 공공조직의 비효율성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료기관이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시설환경의 개선, 의료장비의 개선)등이 요구된다 할 것임.

※ 특히,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가 특정인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전체에게 그 이익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예산편성에 있어 패러다임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예산을 통제하여 의료기관의 경영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민간위탁기관의 전문성과 전문가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시립병원의 예산편성기조가 건축경영을 기조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예산편성기조로 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2)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가)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예산 개괄(예산사업설명서 110P)

- 서울시의 대표적인 커뮤니티케어 사업인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11억 8천만원 감소하여 전년 대비 24.3% 감소하였음. 그러나 이 감소액은 실질적으로는 증액으로 바라볼 수 있음.

〈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예산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단위	세부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4,846,000	3,666,000	△1,180,000	△24.3%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대비 사무관리비는 크게 증가하였음. 2019년에 1억 2천만원이던 사무관리비가 2020년에는 2억 7천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이는 2019년에 없던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것임. 그러나 집행부는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음.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 관련 사업계획

- 사업계획 : 수립 안 됨
- 편성(안) : 150,000천원
 - 인건비(4명) : 68,800천원
 - 전문인력 교육 : 60,000천원
 - 워크숍(반기별 1회) : 10,000천원
 - 전문가 풀 운영, 현장 모니터링 등 : 11,200천원

- 또한 전문인력 교육 및 매뉴얼 개발의 경우 2019년 3천만원에서 2020년 1천만원으로 줄어들었고, 홍보비 역시 8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줄어들었음. 영양, 재활 기술지원 및 성과분석이 신규로 5천만원 편성되는 등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높게 증가하였음.

〈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사무관리비)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전문인력 교육 및 매뉴얼 개발 30,000천원 = 30,000천원	○ 매뉴얼 개발 등 10,000,000원 = 10,000천원
	○ 보건지소 운영 자문 및 선정심사 10,000천원 = 10,000천원	○ 건강돌봄 추진 지원 용역 = 150,000천원
	○ 지역포괄케어 대시민 홍보 80,000천원 = 80,000천원	- 인건비(4명) 68,800,000원 = 68,800천원
		- 자치구 전문인력 교육 60,000,000원 = 60,000천원
		- 워크숍(2회) 10,000,000원 = 10,000천원
		- 전문가 풀 운영, 현장 모니터링 등 11,200,000원 = 11,200천원
		○ 영양, 재활 기술지원 및 성과분석 50,000,000원 = 50,000천원
		○ 건강돌봄 대시민 홍보 60,000,000원 = 60,000천원
	증감사유	
	사업 추진 지원(용역), 영양 및 재활 기술지원과 성과분석 등 추가	

○ 건강돌봄팀이 2019년 사업실적에 따라 4개구에서 10개구로 확대되어 운영되기 때문에 관련하여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고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편성되어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2억 5천만원 편성되었음. 실제 건강돌봄팀의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2019년 15억 5백만원 대비 31억 4천 6백만원으로 109.0% 증가하였으며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125.6% 증가하였음.

〈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자치단체경상보조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운영 = 1,505,000천원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운영 = 3,146,000천원
	- 기존 운영 = 1,092,000천원	- 기존 운영 = 2,420,000천원
	▷ 인건비(의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4명) 178,000,000원*4팀 = 712,000천원	▷ 인건비(전문인력 4명) 167,000,000원*10팀 = 1,670,000천원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재활운동, 건강수첩, 당뇨병 관리 소모품 등) 95,000,000원*4팀 = 380,000천원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재활운동, 건강수첩, 당뇨병 관리 소모품 등) 75,000,000원*10팀 = 750,000천원	
- 신규 선정 = 413,000천원	- 신규 운영 = 726,000천원	
▷ 인건비(의사, 의료사회복지사 등 4명) 133,500,000원*2팀 = 267,000천원	▷ 인건비(전문인력 4명) 83,500,000원*6팀 = 501,000천원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재활운동, 건강수첩, 당뇨병 관리 소모품 등) 73,000,000원*2팀 = 146,000천원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재활운동, 건강수첩, 당뇨병 관리 소모품 등) 37,500,000원*6팀 = 225,000천원	
		○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250,000,000원 = 250,000천원
	증감사유	
	- 건강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운영(16팀 / 기존 10팀 + 신규 6팀)	
	- 재택의료서비스 제공(5팀)	

- 위와 같은 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2019년에는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관련한 예산 중 보건지소 확충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임. 2019년에 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은 신규보건지소 4개소 28억원 및 보건지소 확충 추가지원금 3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1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2020년 예산에는 다시 기존(2018년 기준)과 같이 보건지소 확충지원 예산이 타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임.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11억 8천만원 감액이 아닌 19억 3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2)

〈표〉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보건지소 확충 지원 사업)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자치단체자본보조	○ 보건지소 확충 지원 700,000,000원*4개소 = 2,800,000천원	
	○ 보건지소 확충 추가 지원 311,000,000원 = 311,000천원	
	증감사유	
	- 보건지소 확충 지원 내역사업 분리	

(나)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실적

- 사업실적을 살펴보기 위하여 건강돌봄서비스의 집행실적을 알아볼 필요가 있음. 건강돌봄서비스는 2018년 4개 자치구(성동, 노원, 은평, 관악)을 시작으로 하여 2019년 본예산 편성(10개 자치구 확대)되었음. 그런데 10개 자치구 확대와 관련하여 예산의 집행내역과 관련하여 의구심이 존재함.
- 아래의 표는 자치구별 건강돌봄팀 예산 사용 실적을 표시한 것으로 2018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자치구(4개구)의 경우 2019년 분기별로 예산을 교부받아 2019년 신규참가한 자치구(광진, 강북, 마포, 양천, 강서, 구로)의 경우 2분기까지 교부받아 집행한 예산이 거의 없으며 광진구의 경우 3분기에 집행을 일부 하였으나 강서구나 구로구의 경우는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4분기에 이르러 10개 자치구가 모두 집행을 하고 있음.
- 또한 기존에 사업에 참가한 자치구들은 2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신규자치구들은 8천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있는 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예산심의 결과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2020년 감액 11억 8천만원 (A), 2019년 보건지소 관련예산 31억 1천만원(B) (A)-(B)=19억 3천만원

- 2019년 예산심의과정에서는 2개 자치구가 신규로 참여할 것으로 예산세부 사업을 제시한 바 있으나 2019년 집행에 있어서는 6개 자치구가 신규로 참여한 점은 문제로 지적할 수 있음. 또한 집행부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수요가 폭증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포함하여 최초 예산심의 받은 대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실적의 확대를 도모한 바 있음.

〈표〉 자치구별 건강돌봄팀 예산 사용 실적(실사용) 분기별

자치구	교부액	집행액				
		계	1~2분기	3분기	4분기(10월)	
합계	1,505,000	808,972	329,657	256,611	222,704	
성동구	기존	256,250	154,495	71,954	54,886	27,655
노원구		256,250	156,313	95,467	33,568	27,278
은평구		256,250	157,480	76,617	63,844	17,019
관악구		256,250	177,320	85,619	71,509	20,192
광진구		80,000	28,590	-	27,716	874
강북구	신규	80,000	59,396	-	4,588	54,808
마포구		80,000	11,438	-	100	11,338
양천구		80,000	29,111	-	400	28,711
강서구		80,000	27,503	-	-	27,503
구로구		80,000	7,326	-	-	7,326

- 2020년 예산안은 신규자치구 6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자치구에 대하여서는 반년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2019년의 집행사례를 생각해 볼 때,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사업의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 사업 참여구 확대 : 10 → 16
- 돌봄SOS센터 확대와 연계한 신규 참여 구 6곳 추가 선정 및 기존 참여 구 연간 사업 운영
 - 기존 : 242백만원 × 10개구
 - 신규 : 121백만원 × 6개구

○ 서울시 집행부는 건강돌봄서비스가 돌봄SOS와 연계하여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으나 「돌봄SOS센터」 추진 기본계획(희망복지지원과-21255)를 살펴보면 복지욕구 중심의 건강돌봄서비스인 「돌봄SOS센터」와 시민건강국에서 주관하고 있는 의료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돌봄서비스는 그 결이 다르다고 할 것임. 또한 사업성과를 확장하기 위하여 예산심의의 결과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서는 집행부의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산통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한 것으로 보이나 예산심의 당시의 계획을 수정한 것은 예산심의권에 대한 훼손시도로 볼 수 있음.

○ 서울시 집행부는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사회 거주자들에게 보건복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겠다는 사업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치구 건강돌봄팀의 확대가 해당 사업의 성과가 됨으로서 시민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성과지표에 매몰된 사업진행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임.

〈표〉 건강돌봄서비스 성과지표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추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출처	
			구분	'18	'19	'20	'21			'22
건강돌봄팀 확충 개소 자치구 수(개)	핵심	40	목표	4	10	15	20	25	자치구 수	자치구별 건강돌봄팀 확충 수 확인
			실적	4	10					

(다) 소결

- 서울시민의 의료적인 욕구에 기반한 보건의료복지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자치구 확대를 목표로 성과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음. 성과지표는 돌봄서비스 수혜자에 그 중심이 있어야 할 것임. 실적위주로 사업집행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시민에게 어떠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것이 아닌, 자치구 수의 확대를 위해 예산심의대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음.
- 2019년 예산심의 당시 2개 자치구를 추가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6개 자치구로 금액을 쪼개서 성과지표를 충족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반대로 6개 자치구로 금액을 쪼개서 집행함으로써 필요한 자치구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집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또한 6개 자치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왔으나(총 16개) 집행부가 제시한 실적 및 목표치는 2020년 15개 자치구인 점은 현재 10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볼 수 있음.

(3) 이 외의 보건의료정책과 사업과 관련하여

(가) 안전망병원 운영(예산사업설명서 198P)

- 안전망병원은 주민등록주소,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등 공적 사회보장체계에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무료 의료기관이나 그 외 공적인 역할을 하는 특수한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필요시 시립병원으로 연계하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 3년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7년과 2018년의 불용액을 토대로 예산이 감편성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표〉 안전망병원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x) 420,000	(x) 0	(x) 0	(x) 420,000	(x) 408,103	(x) 0	(x) 11,897
2017	(x) 635,000	(x)	(x)	(x) 635,000	(x) 414,358	(x)	(x) 220,642
2018	(x) 490,000	(x)	(x)	(x) 490,000	(x) 350,365	(x)	(x) 139,635

- 다만 해당사업에서 무료진료기관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사업여건이 변동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예산을 감편성하는 것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직접 치료비 지원, 신규 무료진료소의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해당 사업은 일반회계를 이용한 예산사업 보다는 기금사업일 경우 사업집행의 용이성이 있으나 시민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외에 기금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기금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음. 따라서 진료비 지원을 위하여 매해 예상되는 추정치를 통해 예산편성을 하고 있음.
- 불용률을 살펴 볼 때, 감액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 등을 살펴볼 때,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매해 반복되는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거나 신규 진료소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감액 편성하였음. 집행부의 집행의지와 다년간 운영해온 실적을 토대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나) 자립생활지원주택 운영(예산사업설명서 243P)

-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소득과 주거를 이야기 할 수 있음. 자립생활지원주택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가 살 수 있게 하는 주택임.
- 비용효과적으로 볼 때 자립생활주택 보다 지원주택이 더욱 나은 형태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음. 단기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많은 숫자의 주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자립생활지원주택의 경우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정신질환자가 형성된 자본이 없는 경우의 대안으로 볼 수 있음.

〈표〉 자립생활주택 예산안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1,727,000	(x-) 1,727,000	(x-) 1,057,812	(x-) △669,188	(x-) △38
사회복지사업보조	(x-) 527,000	(x-) 527,000	(x-) 1,057,812	(x-) 530,812	(x-) 100
기타자본이전 ³⁾	(x-) 1,200,000	(x-) 1,200,000	(x-) 0	(x-) △1,200,000	(x-) △100

- 2020년의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자립생활주택의 예산이 1억 2천만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립생활주택에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줌. 그렇다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위하여 지원주택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지원주택 예산도 증액되지 않았음. 따라서 한정된 수의 정신질환자만이 자립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의 확장 필요성에 대한 집행부의 내부적인 결정은 현행 유지라는 측면으로 파악할 수 있음.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24호

〈표〉 지원주택 예산안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0	(x-) 218,000	(x-) 200,000	(x-) △18,000	(x-) △8
사무관리비	(x-) 0	(x-) 10,000	(x-) 10,000	(x-) 0	(x-) 0
사회복지사업보조	(x-) 0	(x-) 208,000	(x-) 190,000	(x-) △18,000	(x-) △8

- 지원주택의 경우 2019년의 집행실적이 낮아 예산이 증액편성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후 S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를 지원해야 할 것임.

〈표〉 지원주택 집행상황

구 분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주요 추진실적 기재 (집행율 70%미만 사유)
정신질환자 지원주택운영	218,000	52,500	165,500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주택 16호 확보 - 입주자 11명 최종 선정 - 주거지원협의체 구성·운영 (20명/7차) - 서비스 제공기관: 1개 선정 ※ 70%미만 부진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은 SH공사 및 주택정책과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과 달리 입주자 선정 최종 확정이 11월 중에 이루어짐에 따라 2개월에 대한 운영비만 집행하게 됨 (부득이하게 집행잔액 발생함)

-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은 시점에서 치료와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음.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사회통합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는 집행부가 예산을 의례적, 관례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부의 예산편성 관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려야 할 것으로 사료됨.

나)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1)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사업

- 시립정신병원(민간위탁 3개소)의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은 2019년 대비 13억 2천만원 증가한 15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658.0% 증가한 금액임.
- 주요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19년에는 시립병원 브랜드 간판교체를 위한 예산과 기능보강(축령정신병원 화장실, 고양정신병원 피난대피소 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2020년의 편성기조도 기능보강을 위한 예산(백암정신병원 전기설비교체, 축령정신병원 냉난방 시스템, 고양정신병원 노후승강기 교체)가 편성되었음. 시립정신병원(민간위탁 3개소)에 대하여 창살제거 및 창문교체를 위한 예산이 6억 5천만원 추가로 편성된 것이 특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발효 이후 탈원화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의 측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는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과 인권보호에 인색했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바라볼 수 있음.

- 특히, 정신질환자의 인권 문제는 수년간 지적되어 왔으나 정책적인 대응은 미비한 상태로 해당 정책을 통해 장기 입원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증진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특정 정신병원의 경우 운영에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으므로, 해당 병원에 대한 운영방식에 따라 예산을 심의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 것임.

〈표〉 시립정신병원 기능보강 예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민간위탁사업비	○ 백암정신병원 시립병원 브랜드 간판교체 10,000,000원 = 10,000천원	○ 백암정신병원 변전실 전기설비 교체 236,000,000원 = 236,000천원
	○ 축령정신병원 화장실 개선공사 107,012,000원 = 107,012천원	○ 축령정신병원 냉난방 시스템 공사 478,151,000원 = 478,151천원
	○ 축령정신병원 시립병원 브랜드 간판교체 10,000,000원 = 10,000천원	○ 고양정신병원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 157,564,000원 = 157,564천원
	○ 고양정신병원 화재, 긴급재난 피난대피소 조성 62,942,000원 = 62,942천원	○ 3개 정신병원 창살제거 및 창문교체 650,000,000원 = 650,000천원
	○ 고양정신병원 시립병원 브랜드 간판교체 10,790,000원 = 10,790천원	
	증감사유	
	시설 노후화에 따른 병동 전기설비 보수공사, 냉난방 시스템 및 노후승강기 교체 공사 등 대규모 공사 진행 및 환경개선 공사비 반영으로 증액	

(2)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

- 서울형 시민공감응급실 운영사업은 응급실에 공공응급상담사가 상주하여 응급진료 후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약계층 대상자를 선별, 개입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전문기관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동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등에 공공응급상담사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

- 해당 사업의 목적과 수행방식을 볼 때, 인건비를 시립병원에 지원하는 것은 중복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특히, 동부병원과 같은 경우 (주취자, 주취노숙인 대상)알코올 해독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등 유사중복에의 우려가 있다고 할 것임.

〈표〉 2019년 시민공감응급실 운영관련

연번	기관명	공공응급상담사	예산교부액(천원)	지급내역
1	보라매병원	2	35,000	1명분 미지급
2	서울의료원	2	2,000	2명분 미지급 (운영비만 지급)
3	동부병원	1	33,000	지급
4	국립중앙의료원	1	32,000	지급
5	서울적십자병원	1	32,000	지급

-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설립 목적 중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을 별도의 보조금을 설정하여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지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료사회복지의 성격을 가진 사업이니 만큼 시립병원의 의료사회사업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지 보조금을 통한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성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민간병원의 의료사회사업실이 모금 등의 사업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시립병원의 의료사회사업실은 모금 등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화된 사업을 통해 의료사회사업실 운영에 있어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 서울의료원의 경우 운영비만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시립병원에 대하여서는 자체예산과 사회사업실의 확대를 통한 보건복지의료 연계 서비스로 이 외의 병원에 대하여서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3) 정신질환자 대상 사업

(가) 예산 및 사업 개요

- 신규사업은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사업과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사업, 응급입원 비용 지원 사업,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의 4개 신규사업(국비)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 먼저, 전년대비 13억 9천만원 상승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의 경우 자치구 정신건강복지 전담인력 20명을 충원하고 자치구에 기 지원되던 인건비 중 정책상승률과 정신응급대응인력의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임.
 -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 직영 운영하는 자치구가 많으나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관련 단체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으나 단순히 전담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전달체계 자체를 변화시키거나 서비스 질을 높인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상적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예산편성이 타당한가에 대하여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 또한 자치구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사업내용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의구심 존재한다고 할 것임.

〈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인건비 7,200,108,000원 = 7,200,108천원	○ 인건비 7,790,924,000원 = 7,790,924천원
	○ 사업비 및 운영비 1,491,006,000원 = 1,491,006천원	○ 사업비 및 운영비 1,491,006,000원 = 1,491,006천원
	○ 정신건강 전담인력 지원 40,000,000원*30명 = 1,200,000천원	○ 정신건강 전담인력 지원 40,000,000원*50명 = 2,000,000천원
증감사유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자연상승분 및 정신응급대응인력증원(15명*20,000천원)		
- 정신전담인력(시간선택제 인건비 40,000천원*50명)		

- 이 외 4개 신규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구비 매칭 사업들임. 각각 해당사업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표〉 정신질환자 치료지원사업(3개 신규)

연번	사업명	매칭비율(국시구)	예산	목적
1	정신질환 조기치료지원사업	50:25:25	192,000	신질환 발병 초기 환자의 치료비 지원
2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50:25:25	90,000	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3	응급입원 비용 지원	50:25:25	127,500	응급입원 정신질환자의 진료비용 지원
4	정신질환 외래치료 지원제 치료비 지원	50:25:25	192,000	정신질환자 외래치료비 지원

- 해당 사업들은 모두 (국정과제 44-4)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복지 제공 등 사회통합지원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의 재정여건이 자치구마다 상이한 점,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일 경우 금액을 확보할 수 없는 점, 가난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정신질환자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특화사업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나) 소결

- 보건복지부는 2018년 5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요원을 전국적으로 확충, Halfway-House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대상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낸 바 있음. 그러나 현실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인건비 지원의 경우 서울시의 자체재원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으며, Halfway-House의 경우 서울시와 경기도만 운영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의 특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보건복지부 등의 국비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이는 시민건강국의 한정된 예산 실링(Ceiling)에서 세입이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신규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정신질환자관련 사업에 있어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건강국의 시비예산 실링(Ceiling)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존재한다 할 것임.

2) 건강증진과

가) 건강증진과 총괄

- 건강증진과는 1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4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이는 전년대비 114억 6천만원 증액된 것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건강생활 기반조성의 경우 국비는 7백만원 감소했으나 시비는 7억 3천만원 감액되었음. 시민건강관리능력 배양의 경우 국비 증가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 5천만원 상승하였음.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은 국비 45억 6천 7백만원 포함하여 총 65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의 경우 국비 증가액은 9천 7백만원이나 총 54억 6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표〉 건강증진과 정책 및 단위사업_행정운영경비 등 제외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단위사업			
시민건강수준 향상	(X50,045,821) 130,127,677	(X54,803,829) 141,595,891	(X4,758,008) 11,468,214
건강생활 기반 조성	(X5,682,754) 11,514,264	(X5,674,970) 10,783,880	(X△7,784) △730,384
시민건강관리 능력 배양	(X6,664,503) 10,142,223	(X6,765,829) 10,293,820	(X101,326) 151,597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X30,617,392) 70,766,449	(X35,184,616) 77,351,848	(X4,567,224) 6,585,399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X7,081,172) 37,704,741	(X7,178,414) 43,166,343	(X97,242) 5,461,602

- 감염사업을 살펴보면, 건강도시 환경조성 예산은 전년대비 28.0%감소한 5억 1천 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는 통합건강증진단의 민간위탁금이 줄어든 것임. 민간위탁금 감소사유로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 공공보건의료재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임. 그러나 공공보건의료재단의 현재 예산수준으로는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수준의 예산(인건비 및 사업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다음으로 광역치매지원센터 운영의 경우 사무실의 이전과 관련한 비용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 감소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할 것임.
-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의 경우 난임지원사업만 진행되고 치매지원사업의 경우 폐지된 안을 제출하였음. 치매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나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을 줄인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증액사업의 경우 신규사업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 사업이 7천 5백만원 편성되었음. 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한 사업목적은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사업수행방식이 1개소 공모인 점,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인 점은 사업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관련한 시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임. 특히, 기능보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23억 3천 7백만원 인상되었음. 출산도우미(산후조리)를 위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저소득층의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한 내용으로 증액편성한 안임.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던 사업이 이관된 것으로 전년대비 1억 2백만원 증액되어 편성되었음. 모자건강센터

설치의 경우 전년에 없던 예산이기 때문에 신규예산으로 구분되는데 7개소에 대한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고 있음.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대비 5억 6천만원 증액되어 53.8% 증액된 16억원이 편성되었음. 해당사업은 임신과 관련하여 사전적 건강검진(모체감염질병 외)을 통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마지막으로 찾동 방문건강관리 예산은 47억 3천 5백만원 증액되었고 통합 방문건강관리의 경우 7억 2천 6백만원 증액되었음. 이는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이 증액된 것임.

〈표〉 건강증진과 주요 증감 사업(세부사업명 기준, 국비 구분 생략)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주요 감액사업					
건강생활 기반 조성	건강도시 환경조성	713,660	513,660	△200,000	△28.0%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광역 치매지원센터 운영	1,133,242	944,331	△188,911	△16.7%
	한의학적 치료 및 건강증진사업	1,000,000	595,000	△405,000	△40.5%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건강생활 기반 조성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	-	75,000	-	신규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	29,664	59,020	29,356	9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8,340,500	30,677,933	2,337,433	8.2%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	1,340,200	1,443,000	102,800	신규(이관)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모자건강센터 설치 운영	-	1,050,000	1,050,000	신규
	서울시 남녀 건강출산지원	1,040,000	1,600,000	560,000	53.8%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지원	찾동 방문건강관리	24,185,546	28,920,734	4,735,188	19.6%
	통합 방문건강관리	6,701,215	7,427,629	726,414	10.8%

나) 건강증진과 사업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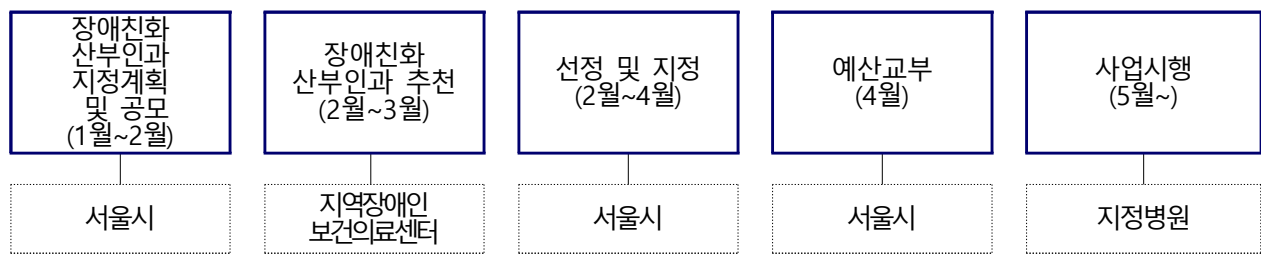
(1)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예산사업설명서 310p)

- 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운영하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예산이 시비지원 사업이어야 하는 이유 등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자본보조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정 계획

- 2020년 1개소 → 2025년 연차별 확대 총 25개소(자치구 별 1개소 지정)

○ 지정 일정



- 첫째로,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추천하는 것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담당한다는 것임. 이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이 되어야 할 것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은 주로 장애인의 통합적 건강관리, 보건소 중심의 지역재활사업 등의 자문이나 협력 등을 담당하는데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특정한 민간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구심 존재한다 할 것임.
 - 다음으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장애인 이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동의하나 7천 5백만원의 비용지원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 통로의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금액으로 집행부는 이동식 초음파 기기를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동식 초음파 기기가 장애인만을 위해 쓰이는 것은 아닐 것이 예상되는 점은 단순히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출산 계획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는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한시적, 일회성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출산이 장려되거나 제고된다는 측면의 사업계획도 문제가 있음. 장애인의 출산과 관련하여서는 시민의 인식제고(의료진 포함) 등이 전제되어야 함. 아직도 장애인의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런 부분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의 예산 수준으로 1개소만 지원할 수 있는데, 시립병원의 경우 이미 4개소의 종합병원을 갖추고 있어 시립병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장애인 출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더욱 합리적일 수 있음. 이미 시립병원에서 유사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도 있음.
- ※ 시혜적인 사업계획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 출산에 대한 선입견을 강화시킬 수 있음.

- 마지막으로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공병원 의무화 추진을 하겠다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밝힌바 시일이 촉박한 일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통해 매칭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로 판단됨. 이에 재원의 효과적인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2019년 10월 21일)를 통해 박능후 장관은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활성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으로 다 설치할 예정” 이라고 밝힌 바 있음. 서울시의 경우 4개의 종합병원(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에만 설치한다고 해도 권역별로 배분 될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한다고 할 것임.

(2) 음주폐해 예방사업(예산사업설명서 331p)

- 음주폐해예방사업은 홍보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주류접근성 가이드라인 제정 1천만원, 불법판매 모니터링 5천만원, 청소년 금주문화형성 2천만원, 절주캠퍼스 조성 5백만원, 음주폐해예방 대시민 홍보 1천5백만원, 절주 상담사 교육 3백만원 등임.
- 그러나 2019년 예산은 실제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일부 증액편성하여 제출되었음. 2018년 11월 5일의 시민건강국장 결재 방침(건강증진과-20936)은 예산 편성전 신규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었음. 그러나 예산편성안(2019년)과는 다르게 방침이 결재된바 있음.

〈표〉 음주폐해예방사업 2019년 예산관련

예산서 제출(안)		시민건강국장 방칭	
예산서	산출	사업내용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음주폐해예방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7,800,000원 = 7,800	지역사회 음주폐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기술지원	30,000천원
		대상별 음주폐해예방 대상별 교육	5,000천원×4회 = 20,000천원
	음주폐해예방 협의체 운영 150,000원*14명*2회 = 4,200	건강한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4회)	5,000천원 ×4회 = 20,000천원
		주류불법판매 모니터링 실시	10,000천원
음주청정구역 표지판 설치비 4,000,000원*22개소 *1개 = 88,000	대시민 홍보비(대시민 토론회)	2,500천원×4개교 = 10,000천원	

○ 그러나 2019년의 집행실적은 이와는 또 다르게 집행하고 있었음. 예산액 1억원 중 17.4%만 집행되어 1천 7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외의 예산에 대하여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었음.

○ 집행부는 아래의 〈표〉와 같이 청소년 음주예방 동영상 촬영에 참여할 출연진 협의 난항으로 제작이 지연되었다고 밝히고 있음. 그렇다면 연내 집행 계획 및 이월여부에서 음주청정지역 안내판 설치가 집행계획이 되어서는 안됨.

※ 이미 제작후 22개소에 설치를 했다고 하며, 음주청정지역(공원)의 규모에 따라 추가설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표〉 음주폐해예방사업 집행실적(2019)

사업명	예산액 (천원)	집행액 (천원)	집행률 (%)	집행부진 사유	연내 집행계획 및 이월 여부
음주폐해 예방사업	100,000	17,483	17%	청소년 음주예방 동영상 촬영에 참여할 당초 출연진 협의의 난항으로 제작 지연	연내 집행 (음주청정구역안판설)

- 다음으로, 해당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 하고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것임. 집행부진사유로 제시한 청소년 음주예방동영상 촬영의 경우 예산심의당시 제출한 사업계획과 동떨어진 것이며, 안내 판을 연내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겨울은 음주청정구역에서의 음주가 많은 시기는 아님. 1년간 예산심의권을 훼손한 결과가 해당 사업의 집행과 효과성을 낮춘 것임. 따라서,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 2020년의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서도, 몇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음. 첫째, 해당 사업은 통합건강증진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과 큰 차이점을 보여야 하는데, 건강증진사업으로 이미 금주, 절주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순 캠페인성 사업에 대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부족하다고 할 것임.
- 다음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주류접근성 가이드라인 개정과 가이드라인 준수 및 불법판매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주류의 불법 판매는 청소년 등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는 「청소년보호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건강증진과에서 해야 하는 사업의 내용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음.

〈표〉 음주폐해예방사업 2020년 편성안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음주폐해예방인식개선 홍보물 제작 7,800,000원 = 7,800천원	○ 주류 접근성 가이드라인 개정 10,000,000원 = 10,000천원
	○ 음주폐해예방 협의체 운영 150,000원*14명*2회 = 4,200천원	○ 가이드라인 준수 및 불법판매 모니터링 50,000,000원 = 50,000천원
	○ 음주청정구역 표지판 설치비 4,000,000원*22개소*1개 = 88,000천원	○ 청소년 금주 문화 형성 20,000,000원 = 20,000천원
		○ 절주 캠퍼스 조성 5,000,000원 = 5,000천원
		○ 음주폐해예방 대시민 홍보 15,000,000원 = 15,000천원
		○ 절주 상담사 교육 3,500,000원 = 3,500천원
		○ 자문회의 운영 및 유기관 간담회 1,000,000원 = 1,000천원
	증감사유	
	절주 상담사 교육 및 주류접근성 제한 강화	

- 또한, 예산사업설명서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규범 형성 준비(2019)라고 밝히고 있는데 정부에 의하여 형성되는 사회규범을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 일반적으로 규범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됨. 기술적 규범으로 특정 집단에서 실제로 많이 해 오던 행동을 의미함. 다른 하나는 지시적 규범으로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인 용인을 의미함. 따라서 서울시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지시적인 규범을 설정하겠다는 것인데 합법약물의 사용에 대하여 그 양과 절차, 행동양식까지 사회규범화 하겠다는 것은 그

동안 정부가 수행해온 절주 캠페인 등과는 결이 다른 내용으로 지나치게 후견주의적인 국가관에 중심을 둔 사업으로 여겨짐.

(3)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중복성(예산사업설명서 369, 414, 419)

-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관리와 이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인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특히,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서울시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이하 ‘찾동’)을 실행하며 찾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함께 시작하였음. 해당 사업의 최근 3년간 결산실적은 다음과 같음.

〈표〉 찾동 방문건강관리 결산(3년간)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x-) 10,544,492	(x-) 0	(x-) 0	(x-) 10,544,492	(x-) 10,541,558	(x-) 0	(x-) 2,934
2017	(x-) 16,324,510	(x-) 0	(x-) 0	(x-) 16,324,510	(x-) 15,773,275	(x-) 0	(x-) 551,235
2018	(x-) 21,509,054	(x-) 0	(x-) 0	(x-) 21,509,054	(x-) 21,478,721	(x-) 0	(x-) 30,333

- 일견 타당해 보이는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보이나 실질 집행률을 따져보면 그렇지 않음. 2018년은 집행잔액이 3천만원으로 나타나나 실제 집행잔액은 31억 6천만원에 이룸.

- 2018년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간호인력을 채용하여 간호인력 채용의 수가 작아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2019년에 대한 결산자료가 제공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2019년의 성과에 대하여 밝히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무기계약직 방문간호사의 수를 자연적으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보임.

〈표〉 찾동 방문건강관리 결산(3년 정원)

	2017		2018		2019		2019년 간호직	
	어르신	영유아	어르신	영유아	어르신	영유아	어르신	영유아
인원	342	69	397	92	379	91	53	8
계	411		489		470		61	

〈표〉 찾동 방문건강관리_자치구 반납액(2018년)

자치구	교부액			반납액		
	합계	어르신	영유아	합계	어르신	영유아
전체	21,047,621	16,027,494	5,020,127	3,162,035	1,164,705	1,997,330
종로구	905,832	727,055	178,777	136,374	38,737	97,637
중구	482,288	321,948	160,340	216,804	76,312	140,492
용산구	840,080	629,774	210,306	102,156	6,064	96,092
성동구	949,221	727,346	221,875	119,767	6,723	113,044
광진구	836,327	592,499	243,828	146,489	40,923	105,566
동대문구	816,677	567,805	248,872	50,183	3	50,180
중랑구	762,589	538,113	224,476	178,797	102,881	75,916
성북구	1,171,210	935,887	235,323	200,651	114,410	86,241
강북구	780,529	565,944	214,585	71,534	58,154	13,380
도봉구	827,501	607,744	219,757	23,173	4,391	18,782
노원구	1,088,549	846,070	242,479	166,214	118,603	47,611
은평구	882,773	663,956	218,817	76,897	14,710	62,187
서대문구	835,513	626,532	208,981	188,030	88,664	99,366
마포구	903,832	701,494	202,338	102,638	43,751	58,887
양천구	986,535	763,737	222,798	103,660	31,766	71,894
강서구	1,073,072	823,732	249,340	140,651	82,844	57,807
구로구	859,780	639,197	220,583	167,845	41,079	126,766
금천구	674,457	459,005	215,452	127,372	32,221	101,117
영등포구	969,572	750,780	218,792	133,338	45,926	81,446
동작구	861,079	622,569	238,510	92,691	3,495	89,196
관악구	1,083,244	854,938	228,306	150,689	25,617	125,072
서초구	741,691	549,283	192,408	300,598	123,177	177,421
송파구	757,737	757,737	0	2,492	2,492	0
강동구	957,533	754,349	203,184	162,992	61,762	101,230

- 그러나 찾동 방문간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고,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음. 이는 그동안 공무원으로 이들을 채용하기 보다 손쉬운 채용방식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었기 때문임. 그러나 서울시는 찾동 방문간호사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음.

○ 간단히 말하면, 이들을 공무원으로 초기에 채용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으며, 굵은 상처가 터진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는 시민건강국이 가진 인사관리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음. 특히, 전액 시비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을 자치구에 두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소속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동 주민센터 센터장의 의지에 따라 고무줄같은 업무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간호라는 전문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을 요구받게 되어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 등을 겪고 간호전문직의 소진을 경험하게 만드는 원인이 됨. 따라서 이들이 지난 수년간 겪은 소진의 상황이 처우개선이라는 해답으로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지는 것이 인사관리의 핵심적인 업무로 볼 수 있는데, 서울시가 인건비를 모두 지불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인사권과 지휘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이들의 인건비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음. 특히, 처우개선 요구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의 인건비 상승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통합방문간호사의 경우에도 동배치 전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22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통합방문간호사를 찾동의 수행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산의 목적외 사용이 아닌지 의구심 있다고 할 것임.

※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유사한 업무 내용의 유사성 등을 들어 목적에 맞는 사용이라고 밝히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5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의 집행주체인 각 중앙

관서의장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서에서 정한대로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고, 세출 예산에서 계획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임의로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는 것임. 그러나 2019년 예산 심의를 통해 통합방문건강관리 인력의 찾동 전환지원 관련 예산을 승인한 바 있음.

○ 이들 인력이 보건복지부의 예산과 매칭되어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들을 찾동의 인력으로 전환한다면, 이들의 고용당시 사업목적과 고용조건이 변화하게 되는 것임. 이는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에 따른 예산의 사용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찾동 방문간호사로 전환하고 예산을 투입하여 인건비 차액분을 보조하는 것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임.

○ 또한 찾동 방문간호사 사업의 유사·중복과 확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시민건강국은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수행하고자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14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지역사회의 보건증진을 위한 사업에 있어 각 자치구 보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자 하고 있음.

※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시민건강국으로 이관하였음. 그렇다면 시민건강국이 해당 사업을 이관하는 것은 보건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요구하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 보건분야의 전문성 외에도 예산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25개 자치구 모든 동에 찾동 방문간호사, 우리아기건강첫걸음, SOS센터, 통합방문간호사 등이 모두 동 주민센터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들 인력은 전문성이 있는 지역보건인력임. 한편,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사업의 경우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지역보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추후 예산의 비용효율성을 위하여 현재 동주민센터의 간호인력(무기계약직, 정

규직)을 활용하여 동단위 어린이집에 대한 보건 교육 등을 진행 하는 방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음.

※ 하나의 단체(서울시간호사회)를 통해 용역으로 진행되는 경우 지역성이 떨어질 수 있음. 동이라는 최소의 행정단위를 통해 교육이 제공되는 경우 지역사회 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이 될 가능성 존재. 또한 사업예산의 절감을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 예산 등으로 활용가능할 수도 있음.

(4)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예산사업설명서 287, 318, 414)

- 가시성 낮은 예산편성은 예산심의를 복잡하게 만들며, 그 성과측정도 어렵게 만듦. 의회는 예산심의를 통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기능을 하는데 예산의 가시성이 떨어지는 경우 예산심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심의 권한을 충분하게 발휘하기 어렵게 한다고 할 것임.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단의 경우,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에서 증진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을 편성하고 있음. 그런데, 금연분과를 별도로 운영하며 금연도시 서울만들기라는 세부사업에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찾동 방문건강관리에서 신규로 민간위탁금을 2억 5천만원 편성하였음.
- 민간위탁 사업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신규민간위탁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기존 사업에서 일부분이 확대되는 것인가는 각각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2016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안내)하여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단이 금연분과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 외에도 방문건강관리 분과를 별도의 세부사업에 예산편성하여 온 것이 타당한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있음. 또한 해당 예산은 신규사업

임. 따라서 해당하는 것은 신규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할 것임.

※ 특히, 신규로 인건비 항목을 계상하는 등 기존사업이 크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신규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 방문건강관리 분과 (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250,000,000원 = 250,000천원
- 인건비(팀장1, 팀원2)	138,400,000원 = 138,400천원
- 사업비(전담인력 교육, 연구 및 기술지원 등)	111,600,000원 = 111,600천원

○ 이처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통합편성된 총액범위에서 세부내역을 정하지 않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한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의 예산 편성은 주로 「국가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서 이루어지는데 총액계상사업이란 주로 사업시행지가 각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거나,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 등 세부사업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한 사업을 의미함. 그리고 예산수요자가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 이러한 형태의 포괄보조방식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보조금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세부내역별로 구분하여 편성된 영세한 사업을 통폐합하여 예산 운용상의 탄

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에 불과함. 이에 동 사업과 같이 세부 내역 없는 총액편성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매해 예산심의에서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세세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점이 존재함. 따라서 방만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함으로 이에 대하여 따져보아야 할 것임.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훼손여지가 존재한다고 할 것임. 이후 사업예산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예산의 가시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3) 식품정책과

- 식품정책과는 식품안전성 관리향상의 1개 정책사업과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원산지 관리의 2개 단위사업을 위한 예산을 122억 5천 1백만원 편성하였으며 19억 3천 4백만원 증액된 것임.

〈표〉 식품정책과 예산(안)_행정운영경비 등 제외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단위사업			
식품안전성 관리향상	(X3,993,130) 10,316,693	(X4,526,058) 12,251,616	(X533,130) 1,934,923
식품 유통 거래질서 확립	(X3,676,683) 10,209,793	(X4,209,813) 12,144,716	(X533,130) 1,934,923
원산지관리	106,900	106,900	-

- 주요사업별 증감을 살펴보면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너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의 예산이 6천 4백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2020년도부터 민간자문관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대부분의 증액이 신규사업에서 비롯하였는데, 신규사업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식사육아 학교, 꿈나무 건강간식만들기,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계란 냉장차량 지원 등 5개 사업 10억 9천만원 편성되었음.

〈표〉 식품정책과 주요 증감 사업(세부사업명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주요 감액사업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87,614	259,992	△27,622	△9.6%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312,360	247,760	△64,600	△20.7%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190,000		신규
식사육아학교		200,000		신규
꿈나무 건강간식만들기		5,000		신규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500,000		신규
계란 냉장차량 지원		150,000		신규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	32,500	65,000	32,500	100.0%

가) 사업별 검토

(1) 먹거리 마스터 플랜 관련

-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사업은 민간인 자문관 및 100인의 전문가 회의 참가자 등을 통해 먹거리 의제의 발굴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과 서울시 먹거리시민위원회 및 시민공모사업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대비 6천 4백만원 감소한 2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먹거리 마스터플랜 식거버너스 플랫폼 구축 및 활성화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수당 등 163,128,000원 = 163,128천원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수당 등 16,250,000원(105명)*8회 = 130,000천원
	○ 먹거리정책자문관 운영 41,472,000원 = 41,472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시민위원회 운영 및 먹거리 정책자문관 운영에 따른 수당 등 감소	
행사운영비	○ 위원회 워크샵, 심포지엄, 공청회 등 운영 6,000,000원*1회 = 6,000천원	○ 위원회 워크샵, 심포지엄, 공청회 등 운영 6,000,000원*1회 = 6,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시민위원회 공청회, 세미나, 워크숍 등 운영 활성화	
민간인국외여비		○ 밀라노협약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연례회의 참석 5,000,000원*2명 = 10,000천원
	증감사유	
	○ 2017년 및 2018년은 예산편성으로 밀라노 협약 연례모임에 참석하였으나, 2019년에는 예산 미편성 됨 ○ 2019년 2월 부터 서울시 밀라노 도시먹거리정책 협약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연례모임 개최에 따른 먹거리시민위원회 회의 참석 여비	
행사실비지원금	○ 위원회 산업시찰, 견학, 참여 등을 위한 급량비 110명*8,000원*2회 = 1,760천원	○ 위원회 산업시찰, 견학, 참여 등을 위한 급량비 110명*8,000원*2회 = 1,760천원
	증감사유	
	○ 2017. 11. 2. 구성된 먹거리시민위원회 행사실비보상금 편성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 산업시찰, 산지 견학, 참여 등 운영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 공모사업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지속가능한 먹거리 실천 공모사업 50,000,000원*2건 = 100,000천원
	증감사유	
	○ 먹거리시민위원회 의제발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편성하여 민관협치 먹거리 정책사업 활성화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중 민간자문관을 운영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예산의 감액이 있었으며 민간인국외여비가 1천만원 증액되어 왔음.
- 민간인 국외여비 편성과 관련하여 민간인의 의미는 먹거리 시민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민간인 국외여비 지급의 근거가 명확한지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제33조는 시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조례 제26~28조 및 조례 제30조에 민간인 여비지급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조례 제26조는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사항이고, 제27조는 위원회 내에 기획조정위원회를 두는 것과 관련한 사항, 제28조는 분과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이며 제30조의 경우 관계기관 등의 협조와 관련한 사항임. 따라서 여비지급의 근거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민간인 보다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2) 신규사업과 관련하여

- 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여 신규사업이 5개 편성되었음. 다수 사업의 사업계획이 미진한 상황이며, 연내 집행가능성, 사업의 추진체계나 사업내용들이 미진한 경우가 많음.

〈표〉 식품정책과 신규사업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채식하기 편한 환경 조성		190,000		신규
식사육아학교		200,000		신규
꿈나무 건강간식만들기		5,000		신규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500,000		신규
계란 냉장차량 지원		150,000		신규

- 대표적으로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의 경우 사업의 경우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책을 만들고 이를 보급하는 사업임.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살펴 보면 음식독서를 위한 추천도서 소개 및 순회전시에 4천 7백만원외에 음식책을 만드는 연구원 3인 및 책자 제작, 음식독서 활동가 양성, 음식독서 활동가 파견, 다양한 기법의 음식책 활용방법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음.

〈표〉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세부 산출 내용		단가(원)	개(명)	횟수(개월)	금액(원)
사무관리비 : 자문회의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13,800,000
1	공모심사비(수행업체 선정)	100,000	10	1	1,000,000
2	자문회의 및 운영비	160,000	8	5	6,400,000
3	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심사	160,000	8	5	6,400,000
민간경상사업보조 : 독서학교 운영					486,200,000
대상별 음식책 프로그램 개발					180,000,000
1	프로그램별 연구원 인건비(연구원급)	3,500,000	3	9	94,500,000
2	기관모집 및 인력파견관리, 활동가 관리 등	3,000,000	1	9	27,000,000
3	디자인(매뉴얼, 도구, 로고 등) 제작	4,000,000	6	1	24,000,000
4	운영자 매뉴얼 인쇄비	20,000	200	1	4,000,000
5	음식독서 시민 교육자료 인쇄	2,900	5000	1	14,500,000
6	음식독서 툴킷 제작	250,000	40	1	10,000,000
7	회의비, 자문비 등 경비	200,000	5	6	6,000,000
음식독서 활동가 양성 및 파견					46,000,000
1	강사비(원고비 포함)	350,000	4	20	28,000,000
2	보조강사비	80,000	4	20	6,400,000
3	재료비	8,000	50	20	8,000,000
4	양성교육자료 인쇄비	30,000	50	1	1,500,000
5	모집 및 홍보비	220,000	1	5	1,100,000
6	소모품비, 모니터링, 활동가 유니폼 등 운영경비	250,000	1	4	1,000,000
음식독서가 파견					162,000,000
1	영유아 음식독서 교육 활동가 강사비	220,000	8	40	70,400,000
2	학교 관계자 음식독서 교육 활동가 강사비	220,000	6	5	6,600,000
3	직장인 대상 음식독서 교육 활동가 강사비	220,000	6	5	6,600,000
4	주부를 위한 음식독서 교육활동가 강사비	220,000	6	20	26,400,000
5	중년 및 노인 대상 음식독서 교육 활동가 강사비	220,000	6	20	26,400,000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식독서 교육 활동가 강사비	250,000	8	2	4,000,000
7	재료비	10,800	20	100	21,600,000
다양한 기법의 음식책 활용방법 개발 및 보급					51,000,000
1	음식책 활용한 다양한 활동 영상 제작	2,500,000	1	10	25,000,000
2	음식책 오디오북 제작	1,000,000	1	10	10,000,000
3	북모니터링 및 활용방법 보급 홍보카드 뉴스 제작	300,000	1	30	9,000,000
4	음식독서포럼	7,000,000	1	1	7,000,000
음식책 추천도서 소개 및 순회전시(시청 1층 및 서울시도서관 등)					47,200,000
1	도서 및 관련 전시용품 구입비	30,000	200	4	24,000,000
2	전시 및 설명인력 배치	200,000	2	19	7,600,000
3	음식독서 시민특별강좌(저자초청)	450,000	4	2	3,600,000
4	음식독서에 대한 시민홍보카드 뉴스 제작	200,000	10	6	12,000,000

- 그러나 사업예산의 편성과 안을 보면 해당 사업이 1년안에 모두 집행될 것인지는 의문이 있다고 할 것임. 특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써 충당해야 하는데, 해당 사업의 계획은 방대한 점이 있어 한 해에 모두 집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할 것임.

4) 질병관리과

- 질병관리과는 1개의 정책사업 4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은 전년대비 96억 4천 5백만원 감액되었음. 질병관리과는 총 1,118억 6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주요 감액된 단위사업은 생활환경질환예방관리로 국비 34억 4천 8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되었음. 질병관리과의 예산은 주로 국비 매칭에 따라 증감되며 특이 사업으로는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존재함.

〈표〉 질병관리과 예산(안)_행정운영경비 등 제외

(단위: 천원)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단위사업			
생활보건 관리 향상	(X53,507,301) 127,715,323	(X50,893,206) 118,069,453	(X△2,614,095) △9,645,870
공중위생관리개선	(X417,000) 2,103,190	(X218,000) 2,296,191	(X△199,000) 193,001
생활환경질환 예방관리	(X7,852,901) 18,062,119	(X4,403,946) 10,467,383	(X△3,448,955) △7,594,736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X3,030,027) 13,277,968	(X3,457,575) 10,306,438	(X427,548) △2,971,530
생활보건 예방관리	(X42,207,373) 94,272,046	(X42,813,685) 94,999,441	(X606,312) 727,395

〈표〉 질병관리과 주요 증감 사업(세부사업명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주요 감액사업				
국가 암검진	10,100,614	5,500,768	△4,599,846	-45.5%
암환자 의료비 지원	6,491,505	3,618,615	△2,872,890	-44.3%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6,246,214	2,437,888	△3,808,326	-61.0%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55,390	95,490	40,100	72.4%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854,901		신규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지원	160,000	230,000	70,000	43.8%

가) 사업별 검토

(1) 화장실 관련 사업

- 서울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8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해당 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20개 자치구(동대문, 중랑, 양천, 금천, 서초 제외)화장실에 대하여 장애인과 노인이 이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노인을 위하여 지팡이, 우산 등의 거치대 설치, 장애인화장실의 비데 설치 등을 위한 예산과 화장실에 대한 안전설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

하였음. 안전설비의 경우 그동안 필요성이 요구되어온 비상벨 설치, 안심스크린 설치,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치 구입, 화장실 출입문 틈막음 및 완충시설 설치, 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등임.

-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이 적시에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경상사업이 아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용등으로 해당 예산이 편성되었고, 25개 자치구의 수요조사에 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 조사와 시민의 수요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민건강국의 세심한 행정요구가 요구된다 할 것임.

〈표〉 화장실 사업

구분		사업수량(개)	사업비(원)
계		1,282	854,901,000
어르신·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팡이, 우산 거치대(홀더) 설치	1,327	4,644,500
	장애인화장실 비데 설치	95	24,700,000
안전설비 설치	비상벨 설치	130	130,000,000
	안심스크린 설치	202	80,776,500
	안심거울 설치	251	7,530,000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 구입	33	23,100,000
	화장실출입문 틈막음 및 완충시설 설치	204	40,800,000
	화장실 출입구 CCTV 설치	59	59,000,000
	동파예방용 난방기(천정형 복사패널) 설치	59	38,350,000
시설 개선	노후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외벽 개선 포함)	21	416,000,000
	정릉천 공중화장실 장애인 경사로 설치	1	30,000,000

- 또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남녀분리, 층간분리, 안전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개방화장실(및 공중화장실)의 이용에 있어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음.

구분	남녀 분리	층간 분리	안전설비 설치
공사비용(평균)	1,500만원	300만원	70만원
서울시 지원금액	500만원 한도 (평균 공사비의 약30%에 해당)	100만원 한도 (평균 공사비의 약30%에 해당)	50만원 한도 (평균 공사비의 약70%에 해당)
건물주 자부담액	지원한도 초과금액	지원한도 초과금액	지원한도 초과금액
개방기간	3년	1년	6개월
금액	5백만원(3개소)	1백만원(42개소)	50만원(286개소)
(기타 사항) - 건물주 자부담액은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금액 초과분에 한함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건물주 자부담 50%로 참여 저조) - 안전설비 설치에 비상벨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조명개선(LED), 변기실 출입문 시건장치를 추가 설치 가능하며, 화장실 구조변경 없이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이 가능하여 건물주와 임차인이 선호하는 사업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해 남녀분리, 층간분리 보다 상향 지원(공사비 기준)함으로써 건물주 자부담 완화를 통해 참여율 제고			

(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예산사업설명서 572)

- 서울형 유급병가는 저소득층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자를 위하여 일종의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음. 동 사업이 목표로 하는 바와 앞으로 확장될 경우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은 현 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실험적인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동 사업에 대한 시민의 기대 등도 높을 것으로 예측됨. 동 사업의 실행 이후 학술적인 데이터와 시민의 선호도 등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중앙정부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할 것임. 그러나 실 집행에 있어서는 실

망스러운 집행률을 보여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년대비 대폭 삭감된 예산이 편성되었음.

- 2019년의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 대비 38억 8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실제 유급병가지원을 위한 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43억 4천 5백만원이 감액되어 감액비율은 70%에 이룸.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세입과 세출계획을 의미하며 예산을 통해 정책과 프로그램 운영하고 공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함. 이러한 이유에서 예산은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된다고 할 것이며 불용은 회계연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불용되어 예산이 사장됨.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폭 감액편성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임.

〈표〉 서울형 유급병가 예산편성

구 분	2019년		2020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x-) 4,142,352	(x-) 6,246,214	(x-) 2,437,888	(x-) △3,808,326	(x-) △60%
사무관리비	(x-) 56,000	(x-) 106,000	(x-) 643,000	(x-) 537,000	(x-) 506%
전산개발비	(x-) 160,000	(x-) 0	(x-) 0	(x-) 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3,926,352	(x-) 6,140,214	(x-) 1,794,888	(x-) △4,345,326	(x-) △70%

- 집행부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집행저조사유를 홍보의 부족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예산편성에서 드러나듯이 홍보비를 포함한 사무관리비가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임.

〈표〉 서울형 유급평가 홍보비 증액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홍보 및 심의위원회 운영 56,000,000원 = 56,000천원	○ 서울특별시 유급평가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13,000,000원 = 13,000천원
		○ 동영상, 버스광고, 홍보물 제작 등 80,000,000원 = 80,000천원
		○ 뉴미디어 매체 활동 대시민 홍보 400,000,000원 = 400,000천원
		○ 입원환자 홍보 안내문 발송 300,000명*500원 = 15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형 유급평가 지원사업 시행기간 적용 - 입원환자 등 홍보안내문 발송	

○ 그러나 해당 제도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한다는 것 외에 해당 제도발전의 청사진이나 발전방향은 보이지 않으며, 홍보를 하여 시민들의 이용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임. 그러나 실제 유급평가 지원비는 11억 6천 9백만원만 편성되어 왔음. 이는 2019년 39억 2천 6백만원에 비하여 30%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홍보예산을 대폭 편성하여 시민의 이용을 제고하겠다는 목적과 실제 예산편성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이러한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임.

※ 2019년의 예산이 6개월간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예산은 전년대비 15%수준의 편성이라고 할 것임.

○ 이에 홍보의 효과라는 과학적 추계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의구심 있다고 할 것이며, 집행부의 원인분석과 그 원인에 대한 대처, 그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할 것임. 이는 시장의 주요한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경등을 염두에 둔 예산편성으로 보이는 바,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됨.

※ 문제의 원인이 홍보라면, 대폭 증가된 홍보비는 예산 집행을 촉발할 것인데, 전년 대비 15% 수준의 예산편성이 타당한 것인지 집행부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임.

5) 동물보호과

- 동물보호과는 전년대비 2억 2천 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동물보호과의 사업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동물보호과의 2020년 예산은 총 67억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동물보호과 예산(안)_행정운영경비 등 제외

정책사업	2019	2020	증감
단위사업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X819,973) 6,474,963	(X649,013) 6,701,056	(X△170,960) 226,093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	(X445,434) 5,868,403	(X274,474) 6,094,496	(X△170,960) 226,093
수의공중보건 강화	(X374,539) 606,560	(X374,539) 606,560	-

〈표〉 동물보호과 주요 증감 사업(세부사업명 기준)

(단위: 천원,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B)	증감(B-A)	변화율
□주요 감액사업				
반려견 놀이터 운영관리	93,590	38,300	△55,290	△51.9%
□주요증액 및 신규사업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	100,000	300,000	200,000	200.0%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289,900		신규

가) 사업별 검토

(1)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예산사업설명서 705)

- 민주주의서울에서 제안된 사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하여 편성된 사업임. 주요 내용으로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의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들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주로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

- 도시정비시 길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길고양이의 이주를 도움과 동시에 길고양이의 중성화 등 다각도의 동물복지사업 및 개체수 조정을 통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해당 예산은 시민의 사업제안, 의회의 조례발의를 통해 편성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의를 되새길 수 있는 편성안이라 할 수 있음.

〈표〉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지원사업 예산

과목구분	2019년 본예산	2020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보조금심의위원 참석수당 150,000원*15명*2회 = 4,5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10명*3회 = 4,500천원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매뉴얼 제작 40,000,000원*1식 = 40,000천원
증감사유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매뉴얼(길고양이 이주프로그램 등) 제작		
재료비		○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수술 재료비 40,000원*400마리 = 16,000천원
	증감사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시 약품 등 소모품비	
기타보상금		○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수술 자원봉사자비 11,000원*50명*8회 = 4,400천원
	증감사유	
	길고양이 중성화 동원 수의사, 대학생 등 자원봉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 도시정비구역 동물보호활동 시범사업 120,500,000원*1식 = 120,500천원
	증감사유	
	도시정비구역 시범사업 추진(위기동물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등 지원, 임시보호지원, 교육 및 홍보활동 지원 등)	
시설비		○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지원시설 조성 100,000,000원*1식 = 100,000천원
	증감사유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 여유공간 활용 동물의료 가능시설(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지원시설)로 조성	

6) 이 외 사업소별

- 4개 사업소에 대하여 정책사업-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기본경비는 제외하고 작성되었음.

가) 보건환경연구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 대비 62억 2천 4백만원 증가한 194억 2천 9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한 증액사유로는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와 관련하여 예산액이 58억 5천 9백만원 증가한 것임.
-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중 특이한 증액사유는 대기질 통합분석 운영사업의 증액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음. 해당 사업은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관된 사업임.

- 노후 대기측정장비 및 이동형 상세 분석장비(모바일 랩) 도입
- 입체 대기측정소(9), 도로변(4) 교체로 장비신뢰성 확보
- 미세먼지 원인 배출원 지역 상세분석 장비 도입(모바일랩)
- 대기오염 유해물질 분석장비 도입(오존전구, 이온성분 등)
 - 도시대기, 도로변, 배경 등 공공측정망 유지운영
- 측정장비 정도관리, 대기오염 예·경보제 시스템 운영
- 측정소 장비운영을 위한 기술용역, 대기정보시스템 운영
 - 숨 쉬기 편한 서울만들기 숨 프로젝트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운영하여 배출원, 생활권 미세먼지 오염원 상시관리

-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동안 법정검사업무만 수행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해 왔으나 2020년부터 시민들이 관심있어하는 미세먼지 관련 측정을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이 외에 물순환안전국에서의 이관사업인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수질관리 사업과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사업들도 신규로 타 기관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임.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 먹는물 시설로 사용 가능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검사
- 민방위 비상급수 전용시설 개발 및 수질개선효과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 지하수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오염검사
- ※ 물순환안전국 이관 사업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 광진과 종로 대기측정소 초미세먼지 자동분석 자료 및 수동 샘플링을 통한 성분분석 상세모니터링
- 서울시 초미세먼지 발생원 파악 및 기여율 분석을 위한 측정자료 제공
- ※ 기후환경본부 이관 사업

〈표〉 2020년 보건환경연구원 사업별 예산(안)(행정운영경비 제외)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11,384,528	13,205,528	19,429,948	6,224,420	47.10%
식·의약품 검사 강화	2,397,713	2,397,713	2,482,772	85,059	3.50%
식품 안전성 검사	556,720	556,720	430,720	△126,000	△22.6%
의약품 안전성 검사	209,480	209,480	231,890	22,410	10.70%
강남 유통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754,271	754,271	732,844	△21,427	△2.8%
강북 유통농수산물 한약재 안전성 검사	550,242	550,242	754,318	204,076	37.10%
유통식품 기획검사 강화	97,500	97,500	227,500	130,000	133.30%
가짜식품 판별 검사	229,500	229,500	105,500	△124,000	△54.00%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검사시스템 구축	1,306,495	1,306,495	1,113,896	△192,599	△14.7%
축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국비)	434,220	434,220	434,220	-	0.00%
축산물 안전성 검사-검사장비 지원	-	-	50,000	50,000	신규
시도기축방역-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국비)	312,275	312,275	309,276	△2,999	△1.00%
시도기축방역-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등(국비)	10,000	10,000	200,000	190,000	1900.00%
축산물 검사비 - 항생제 내성균 보조원(국비)	20,000	20,000	20,400	400	2.00%
축산물검사-도축검사운영 축산물검사장비(국비)	300,000	300,000	100,000	△200,000	△66.7%
감염병과 식중독 등 예방감시 강화	1,842,686	1,842,686	2,009,456	166,770	9.10%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사업-표본감시운영경비	45,000	45,000	23,400	△21,600	△48.00%
감염병 예방관리	40,200	40,200	102,000	61,800	153.70%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지역거점 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457,500	457,500	515,000	57,500	12.60%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지역거점 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	120,000	120,000	192,500	72,500	60.40%
수인성 식품매개성 감염병 감시망 운영	21,000	21,000	21,000	-	0.00%
생물테러 대비 감시사업	27,000	27,000	27,000	-	0.00%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노로바이러스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급성호흡기	62,480	62,480	62,480	-	0.00%
노로바이러스 및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망 운영-노로바이러스	28,626	28,626	28,626	-	0.00%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	378,100	378,100	367,886	△10,214	△2.7%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	269,000	269,000	269,000	-	0.00%
결핵 역학조사 관리사업	242,810	242,810	283,714	40,904	16.80%
식중독 예방 및 관리-식중독균 검사 지원	75,480	75,480	75,480	-	0.00%
식중독 예방 및 관리-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5,490	5,490	5,490	-	0.00%
해외유입 모기매개 감염병 관리	70,000	70,000	20,000	△50,000	△71.4%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공유주방 안전관리 강화(국비)	-	-	15,880	15,880	신규
환경오염물질 체계적 조사	2,705,653	4,526,653	10,386,517	5,859,864	129.50%
생활 환경오염물질 검사	1,500,180	1,500,180	829,639	△670,541	△44.7%
수질·토양 오염물질 검사	855,473	1,070,473	946,473	△124,000	△11.6%
수질측정시스템 강화	350,000	350,000	108,000	△242,000	△69.1%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	-	-	150,000	150,000	신규
대기질 통합 분석 운영	-	-	8,205,578	8,205,578	신규
초미세먼지 상세 모니터링	-	-	146,827	146,827	신규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3,131,981	3,131,981	3,437,307	305,326	9.70%
청사시설 유지관리	2,191,078	2,191,078	2,575,355	384,277	17.50%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670,336	670,336	648,336	△22,000	△3.3%
시험·검사 측정기기 소급성 관리(교정비)	30,000	30,000	25,500	△4,500	△15.00%
연구원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43,567	43,567	46,116	2,549	5.90%
환경분야 시험검사 정도관리 시스템 강화	197,000	142,000	142,000	-	0.00%

나) 직영병원

- 어린이병원은 전년대비 10억 7천 6백만원 증가하여 전년대비 12.5%가 증액되었으며, 은평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3.2% 증가한 71억 5천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서북병원의 경우 전년대비 52억 6천 8백만원 감소한 117억 7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서북병원의 경우 2019년 정신질환 결핵환자 치료시설 구축 등의 일시적인 자본보조로 인하여 예산이 감액되게 된 것임.

〈표〉 직영병원 예산편성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어린이병원	8,388,349	8,587,286	9,664,230	1,076,944	12.50%
은평병원	7,008,523	7,151,054	7,383,101	232,047	3.20%
서북병원	16,851,924	17,046,918	11,778,618	△5,268,300	△30.9%

- 직영병원 예산안의 경우 매해 하나의 세부사업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음. 예를 들어 2019년 은평병원의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료장비 및 그 외 장비 유지보수),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공공운영비의 대부분이 의료장비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과목이며 해당 예산과목에서 세부항목이 20종에 이르는 등 세부사업항목에서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또한 세부사업명이 해당 예산과목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때 예산의 가시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함. 따라서 차년도 예

산심의에서는 이러한 면을 고려한 예산안의 제출이 요구된다 할 것이라고 2019년 예산심의 당시 보고서에 밝힌 바 있음.

- 이러한 문제는 직영병원의 포괄적 세출예산 구조로 인한 세출예산 집행내역 파악 곤란, 이로 인한 예산 운용의 투명성 저하, 예산편성의 합리성 저하, 부서간 사업예산의 공동사용 등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권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집행부 예산과와 각 직영병원은 세출예산을 신규 조정하여 2020년 예산안 편성을 하였음. 따라서 2020년 예산안에는 신규사업이 많은 것으로 조정되어 나타나나 실제 사업의 내용이 변한 것은 거의 없으며 예산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임. 이는 그간 예산과 결산을 통해 예산별 불용률의 측정을 용이하지 못하게 한 점을 수정하고 사업별로 실적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어린이병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2019년의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의 세부사업이 6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리된 것을 볼 수 있음. 세부사업이 분리되어 각각 부서의 예산편성을 살펴보기 유리해 졌으며, 이는 추후 결산심의에도 각 부서별 실적과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기 쉬워짐. 추후 이러한 예산편성 방식에 대하여 재논의를 통해 직영병원예산의 가시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할 것임.

〈표〉 어린이병원 세부사업 분리

2019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안			
정책사업				정책사업			
단위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어린이병원)		(X18,376) 7,031,457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어린이병원)			1675591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X18,376) 7,031,457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430,498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675,591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X18,376) 3,925,519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사업명 변경 :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X30905) 2,963,597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297,500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131,465
				어린이병원 간호서비스 수준 관리			792,071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103,540
				어린이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1,308,024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05,030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1,081,968
어린이병원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의무기록(EMR) 교체			1,270,410				

-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아래의 표에 나타나는 예산 감액은 실질적인 감액이 아닌 사업의 재구조화에 따른 감액이 대부분으로 직영병원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표〉 직영병원 세부사업별 예산액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19 예산		2020 예산	최종예산대비	
	당초	최종		증감	비율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7,091,457	7,920,394	8,353,756	1,063,362	5.50%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7,091,457	7,290,394	8,353,756	1,063,362	14.60%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490,498	1,490,498	1,675,591	185,093	12.40%
어린이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3,925,519	3,925,519	2,963,597	△961,922	△24.5%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	-	297,500	297,500	산규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	-	131,465	131,465	산규
어린이병원 간호서비스 수준 관리	-	-	792,071	792,071	산규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	-	103,540	103,540	산규
어린이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	-	1,308,024	1,308,024	산규
어린이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405,030	405,030	1,081,968	676,938	167.10%
행정운영경비(어린이병원 원무과)	1,296,892	1,296,892	1,310,474	13,582	1.00%
기본경비	1,296,892	1,296,892	1,310,474	13,582	1.00%
기본경비	1,296,892	1,296,892	1,310,474	13,582	1.00%
은평병원 원무과	7,008,523	7,151,054	7,383,101	232,047	3.20%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5,792,811	5,935,342	6,211,123	275,781	4.60%
은평병원 운영	5,792,811	5,935,342	6,211,123	275,781	4.60%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1,349,405	1,349,405	1,218,704	△130,701	△9.7%
은평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4,308,891	4,308,891	1,859,346	△2,449,545	△56.8%
은평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	-	376,000	376,000	산규
은평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	-	55,940	55,940	산규
은평병원 간호서비스 수준 관리	-	-	62,800	62,800	산규
은평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	-	56,090	56,090	산규
은평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	-	2,181,272	2,181,272	산규
발달장애아 전문치료센터 운영	58,080	58,080	58,080	-	0.00%
은평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76,435	76,435	342,891	266,456	348.60%
행정운영경비(은평병원 원무과)	1,215,712	1,215,712	1,171,978	△43,734	△3.6%
기본경비	1,215,712	1,215,712	1,171,978	△43,734	△3.6%
기본경비	1,215,712	1,215,712	1,171,978	△43,734	△3.6%
서북병원 원무과	16,851,924	17,046,918	11,778,618	△5,268,300	△30.9%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14,507,647	14,661,979	9,419,367	△5,242,612	△35.8%
서북병원 운영	14,507,647	14,661,979	9,419,367	△5,242,612	△35.8%
서북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4,090,861	4,090,861	3,057,075	△1,033,786	△25.3%
서북병원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6,860,663	6,860,663	2,322,577	△4,538,086	△66.1%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	-	996,644	996,644	산규
서북병원 고객중심 진료서비스 제공	-	-	275,960	275,960	산규
서북병원 간호서비스 수준 관리	-	-	303,370	303,370	산규
서북병원 고객중심 간호서비스 제공	-	-	86,744	86,744	산규
서북병원 약무서비스 수준 관리	-	-	1,670,600	1,670,600	산규
서북병원 의료 및 행정장비 확충	656,370	656,370	706,397	50,027	7.6%

3 기금운용 계획안 검토

- 시민건강국은 식품진흥기금 1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기금은 1989년에 설치되었음. 동 기금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하여 식품의 위생을 강화하고,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표〉 식품진흥기금 2020년도 조성계획

(단위: 천원)

2019년도 말 조성액 ㉠	2020년도 조성계획			2020년도 말 조성액 ㉡ = ㉢ + ㉠
	수입 ㉢	지출 ㉣	증감 ㉤ = ㉢ - ㉣	
64,182,075	2,770,257	5,273,106	△2,502,849	61,679,226

-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4억원 감소한 10억 8천 4백만 원을 수입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주된 감소사유로는 과징금의 감소, 이자수익의 감소를 들 수 있음.

〈표〉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안) (B)	증감(B-A)	비고
계		1,492,849	1,084,566	△408,283	
세외 수입	이자수입	166,021	90,668	△75,353	금융이자 감소
	공공예금이자수입	161,437	67,924	△93,513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안) (B)	증감(B-A)	비고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4,584	22,744	18,160	
	과징금및과태료등	1,263,907	917,006	△346,901	과징금 감소
	과징금	1,263,907	917,006	△346,901	
	기타수입	62,921	76,892	13,971	
	시·도비반환금수입	62,921	76,892	13,971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융자금원금수입	550,210	269,991	△280,219	원금회수 수입 감소
	민간융자금회수수입	550,210	269,991	△280,219	
	예치금회수	5,734,876	3,682,075	△2,052,801	전년도 이월금 감소
	예치금회수	5,734,876	3,682,075	△2,052,801	
	예탁금및예수금	895,400	1,415,700	520,300	재투예탁금 이자 증가
	예탁금이자수입	895,400	1,415,700	520,300	

○ 2020년도 기금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의 지출은 전년대비 22억 2천 1백만원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음. 여유자금의 예치액 감소가 가장 큰 이유로,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과도 깊게 연동되어 있다고 할 것임. 기금의 수입이 과징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수입은 감소할 수 있다고 보임.

〈표〉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

(단위: 천원)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안) (B)	증감(B-A)	비고
계	8,673,335	6,452,332	△2,221,003	
식품안전 위생 관리(사업비)	1,500,000	2,000,000	500,000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안)(B)	증감(B-A)	비고
	위생관리시설개선 용자사업	1,500,000	2,000,000	500,000	
	식품위생업자 민간용자지원	1,500,000	2,000,000	500,000	계속
	교육홍보사업	609,000	595,100	△13,900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 및 운영	54,800	40,900	△13,900	계속
	식품접객영업자 등 위생 교육비 지원	554,200	554,200	-	계속
	식중독 예방사업	195,000	195,000	-	
	선제적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195,000	195,000	-	계속
	음식문화개선사업	1,425,812	1,411,500	△14,312	
	음식문화 개선	382,000	382,000	-	계속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300,000	344,000	44,000	계속
	나트륨 섭취 저감화 사업	593,812	405,500	△188,312	계속
	먹거리 통계 및 기반구축	150,000	165,000	15,000	계속
	서울시민 당류 저감화 사업	-	115,000	115,000	신규(내역 분리)
	식품안전관리사업	696,035	635,506	△60,529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 보수	118,135	52,606	△65,529	계속
	식품안전 전문교육	50,000	55,000	5,000	계속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293,300	293,300	-	계속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24,600	24,600	-	계속
	서울시민 식품 안전체계 구축	90,000	90,000	-	계속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 교육 운 영	120,000	120,000	-	계속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	

구분		2019예산(A)	2020예산(안)(B)	증감(B-A)	비고
	자치단체 징수교부금	20,000	20,000	-	예비비성
	조사 연구 평가 사업	381,000	381,000	-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381,000	381,000	-	계속
재무활동비		3,841,488	1,209,226	△2,632,262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	
	반환금 기타	30,000	30,000	-	
	여유자금 예치	3,811,488	1,179,226	△2,632,262	
	예치금	3,811,488	1,179,226	△2,632,262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	
	기금관리비	5,000	5,000	-	
	기금관리비(사무관리비)	5,000	5,000	-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짐.
- 반면 기금의 경우 예산의 변경사용이 용이하여 예산집행에의 투명성과 목적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금의 목적사업이 여러개인 관계로 정치적인 우선순위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이 결정되는 등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임.
- 더욱이 동 기금의 운영에 있어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로 충분히 운영가능한 사업들이 다수 있는 바(음식문화사업 등) 재정용자지원 사업을 제외하고는 원점에서 재논의할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시민건강국 소관의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증가에 맞추어 예산이 증가할 것이 예측되었는 바 이례적인 편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서울시는 서울케어 브랜드를 런칭하고 시립병원을 서울케어의 주요 수행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병원의 예산이 전년대비 대폭 감소한 점은 공공의료에 대한 서울시의 인색한 투자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사회복귀, 지역사회 통합과 같은 측면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들을 볼 때, 서울시의 선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나 그러하지 못하였음. 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서울시가 보건의료정책의 주요한 목적인 예방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 음주폐해 예방사업은 유사중복사업이 있으며, 예산서에 제출된 안과 실제 집행계획이 달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신규로 편성되는 방문건강관리분과의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국가계획과 함께 발 맞추어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시민공감응급실 사업은 시립병원에서 직접고용하여 인건비지원이 아닌 시립병원의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인건비의 중복지원적 성격을 가진 사업으로 판단됨.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경우 찾동 방문간호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의 경우, 서울형 유급병가의 집행저조 원인을 홍보에서 찾았다면 이에 걸맞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음. 집행부의 원인분석대로 홍보에 문제가 있다면 홍보예산 만큼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나 집행 저조 실적을 산출기초로 삼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임.
- 이러한 점 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논의되어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각각의 문제에 대하여 시민건강국이 적절한 해명을 할 것이 요구되는 바임.